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홍 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문화거리의 재해석과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양 은 나

서울 문화거리의 재해석과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이 홍 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양 은 나

인 준 서

양은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서울 문화의 거리 고찰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는 도심 문화거리에 관한 가치를 파악하고 재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정리와 문화거리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정리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문화가 도시민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거리는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환경의 범위와 문화거리의 현황파악을 통해 연구 주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서울 문화거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화거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서울의 정책적·역사적·공간적 변화를 문화거리 중심으로 파악한 후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은 문화환경의 변화속에서 문화거리가 나아갈 방향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론으로, 조성된 문화거리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분석해 봄으로써 문화거리가 활성화 되어 사용자와 공간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소통의 장소가 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및 사례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화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발전 해왔다. 그 환경의 일부인 거리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정책의 일환으로, 역사의 일부로, 사용자의 편의
데로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거리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공간
이 아니라, 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통과하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 관찰과 관조의 공간, 참여와 오락의 공간, 여가와 즐
거움의 공간으로써 다양한 활동과 독자적인 성격이 부여될 때 거리는 문
화환경의 일부로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로써 본 연구는 문화거리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문
화적 가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
거리 조성 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3 논문의 구성	7
제2장. 문화거리 고찰	8
2.1 문화환경의 정의	8
2.1.1 문화	8
2.1.2 도심 문화환경	13
2.1.3 문화환경 종류와 범위	18
2.1.4 문화공간과 문화시설	21
2.2 문화의 거리	24
2.2.1 개념 및 역할	24
2.2.2 문화거리 유형 분류	29
제3장. 서울의 문화거리 발전과정	33
3.1 정책의 변화	33
3.2 구조의 변화	36
3.3 역사적 변화	45
3.3.1 도시구역의 변화	45
3.3.2 도시계획과 공간 개발에 따른 변화	49
3.3.3 공간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변화	50
3.4 서울 문화의 거리 특징	55

3.4.1 서울 문화거리의 특징	55
3.4.2 서울 가로 환경 및 가로경관 관련 사적	57
제4장.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	61
4.1 사례분석의 틀	61
4.1.1 가치분석의 기준	61
4.1.2 사례분석 대상 및 과정	65
4.1.3 대상지 선정사유	65
4.2 사례분석	66
4.2.1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67
4.2.2 정동 역사문화의 거리	73
4.2.3 아리랑 영화의 거리	78
4.2.4 홍대 복합문화의 거리	84
제5장. 재해석 및 제안	90
5.1 공간적 관점	92
5.2 예술적 관점	97
5.3 역사적 관점	101
5.4 사용자적 관점	105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2-1〉 문화환경의 두가지 국면	15
〈표2-2〉 규모별 문화환경의 구성	20
〈표2-3〉 2006 문화거리의 조성 현황	32
〈표3-1〉 서울의 중심지 체계	46
〈표3-2〉 서울 도시공간의 변화	49
〈표3-3〉 서울 공간의 역사변화	52
〈표4-1〉 사례분석대상	65
〈표4-2〉 사례분석사유	65
〈표4-3〉 사례분석표	66
〈표4-4〉 지역인근 지정 문화재 현황	66
〈표4-5〉 문화업종 분포현황	67
〈표4-6〉 인사동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71
〈표4-7〉 정동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76
〈표4-8〉 아리랑 영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82
〈표4-9〉 홍대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88
〈표5-1〉 바람직한 공간의 생산과 실천을 위한 매트릭스	89
〈표5-2〉 분석 결과에 따른 네가지 관점 요약	90

[그림 목차]

〈그림1-1〉 연구흐름도	7
〈그림2-1〉 문화의 개념영역	11
〈그림2-2〉 문화의 유형	12
〈그림2-3〉 문화의 유형배치도	13
〈그림2-4〉 문화환경 영역: 문화를 위한 환경 / 문화화 된 환경	18
〈그림2-5〉 문화환경 영역: 미학적인 것 / 지역적인 것	19
〈그림2-6〉 문화환경의 영역과 범위	21
〈그림3-1〉 서울 문화재 지정현황	48
〈그림4-1〉 사례분석과정표	64
〈그림4-2〉 인사동 지역 유적 분포현황	66
〈그림4-3〉 인사동거리 현황도	69
〈그림4-4〉 정동길 역사적 건물 현황	72
〈그림4-5〉 정동 문화의 거리 현황도	74
〈그림4-6〉 아리랑 영화의 거리 종합구성도	77
〈그림4-7〉 아리랑 영화의 거리 현황도	80
〈그림4-8〉 홍대지역의 장소성 변천과정	84
〈그림4-9〉 홍대지역 용도별 분포도	85
〈그림4-10〉 홍대 문화의 거리 현황도	86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문화적 향수와 여유가 넘치는 삶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구조는 변화되어 문화가 도시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가 도시의 자랑이 되고 주요산업이 되는 도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문화적 분위기에 만족하고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문화에 취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지가 발생하거나 폐시설이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나 산업시설을 짓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주력했으나 오늘날에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거나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다. 문화환경이 지역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흐름 및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문화거리의 조성이다. 지금까지 서울은 거리환경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명칭의 사업(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녹화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교육문화의 거리,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공공디자인거리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주택국, 도시계획국, 조경과, 문화관광과, 나아가 자치구 담당부서 등으로 시행주체가 나뉘어져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상태이다. 거리의 이미지는 각각의 거리가 지

닌 역사성 · 예술성 · 공간성 · 사용성 등을 기반으로 건물과 시설물들이 모여 결정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율되지 못한 경우 거리가 조성이 되어도 개선된 환경을 사용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간의 문화적 가치 또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단지 보기 좋은 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문화소통’의 장소를 만들고,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문화환경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화의 거리가 지닌 가치를 사용하여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봄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문화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는 도심 문화의 거리에 관한 가치를 파악하고 재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의 변화를 추적하고 문화거리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고자 했다.

첫째, 문화환경의 개념과 문화거리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문화환경이라 함은 매우 다양한 영역과 범주를 포함한다. 가깝게는 시설부터 거리조성, 공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멀게는 주거 · 상업지역의 조성이나 도시기반의 정비 등을 포함하기까지 한다. 쉽게 말해 지역의 경계를 어떻게 하고 용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형태는 달라지며, 그에 따라 문화적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양한 문화환경 중 도심문화환경의 어떠한 부분으로써 문화의 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는 문화환경과 문화거리에 관한 개념파악이 필요

하였다.

둘째, 현재 조성된 문화의 거리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이해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지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문화환경은 문화에 대한 관심정도나 생활 속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관심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문화환경을 중시하는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가치 또한 다르다. 이에 과연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문화의 거리가 통로로써의 일차원적 개념을 넘어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정치적·경제적 활용의 공간으로써 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의 문화환경 변화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기까지의 사회전반적인 문화환경의 변화와 조성된 문화의 거리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이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통해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문화적가치를 더 확고히 할 수 있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문화환경과 문화거리에 대한 개념/서울 문화거리의 발전과정/서울 문화의 거리 분석/문화의 거리 재해석’이라는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화의 거리 고찰’에서는 상위개념인 문화와 도심 문화환경에 대해 정의하고 문화의 거리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문화에서 문화환경으로, 다시 문화공간에서 문화지구로, 마지막으로 최하위 개념이면서 본 연구대상인 문화거리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한다. 이는 상위개념인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의 거리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 문화거리의 발전 과정에 관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먼저 서울의 공간·문화정책이 합일화 되지 못해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의 구조 변화와 역사적 변화를 통해 문화거리 조성되는 배경과 그 역할, 필요성 등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하여 알아본다. 핵심은 급격하게 문화환경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문화도시로써 서울의 전반적인 변화를 정리하고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의 거리가 나아갈 방향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서울 문화의 거리 가운데 4곳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분석한 내

용은 단순히 대표 거리의 현황파악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가 문화환경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어떠한 가치로써 문화환경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문화거리를 재해석 한다. 앞서 분석한 문화의 거리 4곳을 통해 정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거리 생산주체와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공간 · 시간 · 사람 · 접근 · 문화 그리고 삶이라는 중요한 문화형성의 범주들을 기반으로 정리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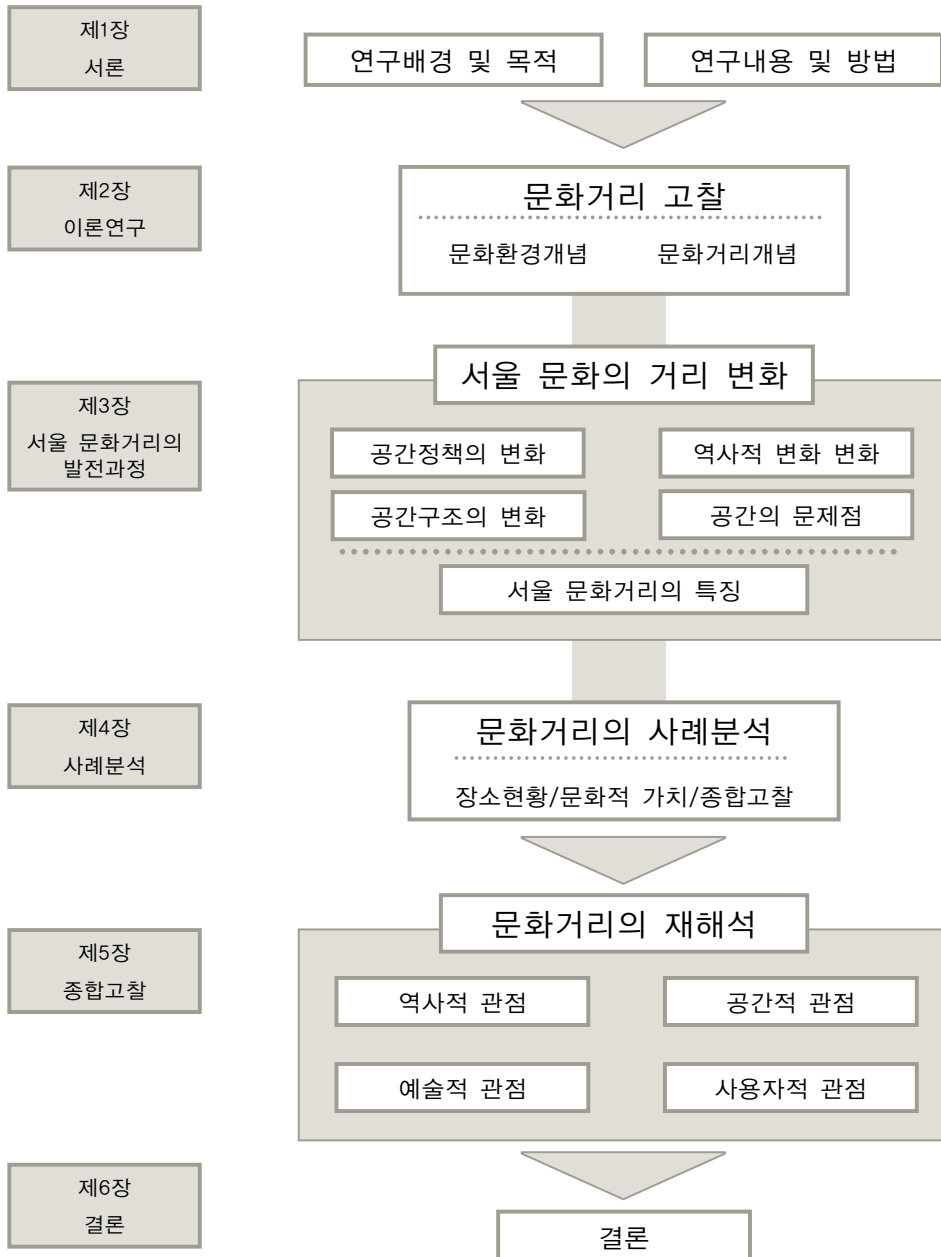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문화환경에 관련된 여러 사회현황과 문화거리의 발전과정을 조사하여 서울 문화거리의 변화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더불어 단순히 문화환경에 대한 일회적인 관심으로 문화거리를 바라보는 것에 그쳐 서울 문화거리가 획일화된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문화의 거리 구성에 관한 전반적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환경변화와 도시계획과 개발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추출했다. 다음으로 문화의 거리 4곳을 분석하였다. 4곳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한 분석 틀을 만들어 거리의 특징, 이미지, 문화가치를 비교 · 분석했다. 공간적 범위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반경 1-2km 지역 내

1) 라도삼, '문화공간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2, 39p

이며, 내용적 범위는 문화적 가치와 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분석한 내용은 단순한 거리의 현황파악이 아닌 문화의 거리의 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적 가치 기준에 의해 문화의 거리를 재해석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1-1〉연구흐름도

2. 문화거리 고찰

2.1 문화환경의 정의

문화환경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문화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화환경의 범위는 ‘환경으로서 문화를 보는 관점’과 ‘장르로서 문화를 보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주로 인간의 일상적인 삶, 사회적 환경 등을 얘기하는 반면, 후자는 주로 예술적인 혹은 전통적인 문화의 분야나 영역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가 “문화가 원래 그래”라고 말할 때 이때 문화는 일상적인 삶, 사회적인 맥락, 컨텍스트(context)²⁾를 가리키는 용어인 반면, 전통문화의 보존이나 예술발전 등을 얘기할 때의 문화는 장르적 차원에서 문화, 즉 특정한 영역과 목적의식적 차원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환경의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문화환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하고, 그로부터 문화환경의 유형과 형태에 대해 규정해야한다. 제 2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화 문화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연구대상 및 범위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하겠다.³⁾

2) 컨텍스트(context): 한 문장 안에 기술된 단어·구·문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적·논리적 관계.

3) 나도삼, “문화환경이 지역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p15

2.1.1 문화

문화가 갖는 ‘다원성’, ‘다의성’, ‘다가성’은 어느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⁴⁾ 따라서 문화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치환하기보다는 다원화·다양화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의 의미를 구분해 보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의미로 문화의 개념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통적인 것’, 즉 시간과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문화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부분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문화유산이나 전통 문화 등 시간 속에 정체된 것을 우리는 문화라 하며 현재의 문화유산 혹은 흔적으로 미래에 남기려고 한다.

둘째, 다른 한편 문화는 ‘미학적인 것’ 다시말해 아름다운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공연활동, 전시 등을 우리는 문화

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2005년 문화관련 학계의 교수 및 연구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문화에 대한 개념은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정치행정학 관련 학자들로 이들은 문화를 민족의 생활양식, 전통, 풍습, 가치관으로부터 인가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고로 규정하였다.

둘째, 경제학자들은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또는 통용하는 관심 규범으로부터 언어, 종교, 학문, 예술, 소비, 놀이, 학습 등 생활양식 등 과정 및 정신적·물질적 소득 등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사회학자들은 규범적 요소, 평가적 요소(고급예술, 대중예술 등), 인지적 요소, 상징적 요소 등으로 구성된 생활양식 총체로 규정했다.

넷째, 예술관련 학자들은 인가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체계이자 인간의 자율성에 따른 행동양식과 창의성 등 정신적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인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요건으로 정의했다.

정갑영 외,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10~11

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예술진흥 및 향수촉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가의 육성과 문화교육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학’을 문화의 또 다른 축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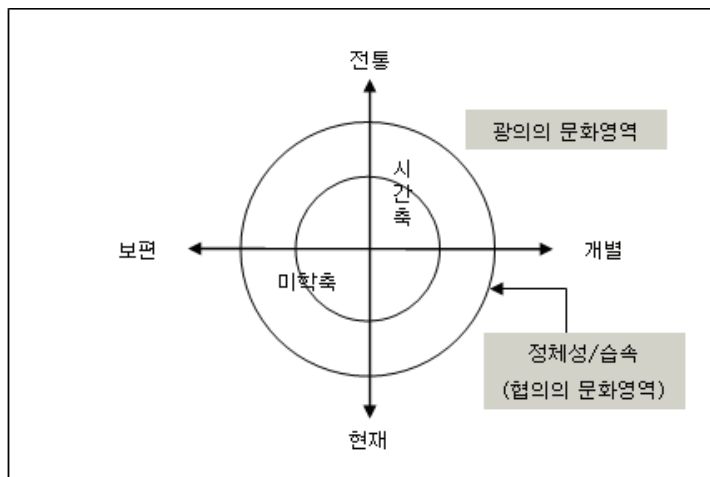
셋째, 문화에 대한 개념은 현재의 습관, 정체된 의식과 관계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현상을 말할 때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래’라고 한다면 이때 문화는 ‘묵시적’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기억, 학습을 지배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짓는 선’이다. 그렇기에 무의식적인 것, 반복적인 것, 학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우리는 문화라 할 수 있다.⁵⁾

이처럼 문화는 기본적인 세가지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요소는 시간을 중심으로 한 전통과 현재의 축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미학과 가치를 가리키는 미학의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정체성, 즉 시간 속에서 축적되어 현재를 지배하는 동시에 미학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정체화 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협의로서 문화는 시간과 공간, 즉 미학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체영역’이며⁶⁾, 광의의 문화는 전통과 현재, 보편적인 미

5) 이와 같은 시각은 2006년 5월 발표한 <문화현장>에서 잘 나타나 있다. 현장은 문화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 개 하며,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학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 즉 보편적인 인간의 삶, 삶의 총체가 문화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이제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게 된다. 우선 수직축인 계열축을 따라 전통적인 ‘역사·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생활문화’가 축의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여기에 보편적인 미학을 가리키는 ‘예술문화’와 특정 장소, 개별적 영역, 주관적인 관점에서 통용되는 ‘장소문화·공간문화’가 수평적인 통합축을 따라 형성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1〉 문화의 개념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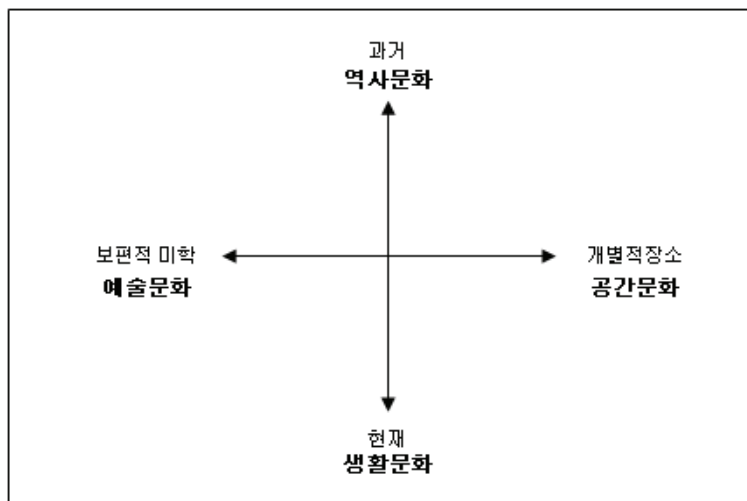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여기서 ‘장소문화·공간문화’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⁷⁾ 특히 도시문제, 지역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하나의 키(KEY)를 형성하는 데 그 이유는 ‘장소’란 문화가 형성할 수 있는 토양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홍대문화라고 할 때, 그것은 홍대만의 독특한 컨셉이며

6) 손봉호, “문화도시의 개념과 이상”,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시, 2005, p3

7) 나도삼, “문화환경이 지역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p18

다른 지역에서 통하지 않는 미학적 조건이나 정체적 현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의 영역에만 나타나는 것이며 매우 주관적이고 임시적이고 합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린 장소의 문화, 공간문화를 보편적인 미학인 ‘예술’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2-1>은 <그림2-2>로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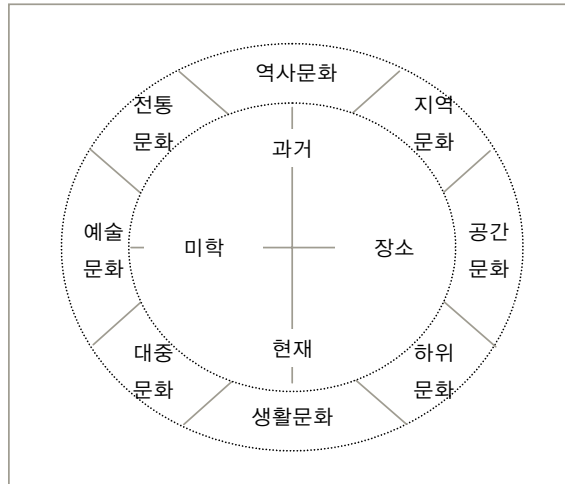


<그림2-2>문화의 유형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림2-2>에서 보듯 문화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다양하게 분토된다.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 각각 다양한 문화가 조응한다. 크게 보았을 때 그것은 전통과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공간문화 등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역과 영역 속에서 혼재되어 나타난 문화적 형태가 존재한다. 예컨대 시간을 통해 축적된 역사문화는 예술적인 ‘전통문화’영역과 공간성과 관련된 ‘지역문화’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생활문화, 일상문화는 대중적인 ‘대중문화’와 특정한 장소, 공간, 집단 등과 관

런 ‘하위문화’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 예술문화, 공간문화도 인접한 요소와 결합된 다른 문화의 영역을 갖는다. 그리하여 문화의 영역은 다음<그림2-3>과 같은 배치도로 재구성되어진다.



〈그림2-3〉 문화의 유형배치도

〈그림2-3〉과 같이 문화의 영역은 시간을 축으로 ‘역사문화’와 ‘생활문화’로 나뉘며, 역사문화와 예술문화 속에 ‘전통문화’가, 예술문화와 생활문화 사이에 ‘대중문화’가 자리 잡는다. 그리고 공간적인 공간문화와 역사문화 사이에 ‘지역문화’가 자리 잡으며, 공간과 생활문화 사이에 ‘하위문화’가 자리 잡는다. 이로써 우리는 문화영역을 ‘역사적인 것’, ‘생활적인 것’, ‘예술적인 것’, ‘공간적인 것’으로 확정한다.

2.1.2 도심 문화환경

도시의 문화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현재성을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문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도시의 문화환

경을 촉발하는 것이다. 전자가 도시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속에서 ‘문화화 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유발하기 위한 ‘문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⁸⁾

‘서울시 화랑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김희진은 ‘문화를 위한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전통이나 현대 등 예술문화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 편익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위락시설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화된 공간’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화의 거리, 환경예술, 유통업무환경, 주거생활환경, 교통환경, 자연녹지환경 등과 같이 광의적 문화의 개념에 따라 조성된 범용적인 행위를 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⁹⁾

다른 한편 황기원 교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문화환경이란 개념을 도출한 다음, 문화환경을 ‘문화를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the culture)과 ‘문화적 환경(cultural environment, cultured environment)으로 대칭시켜 비교하고 있다.¹⁰⁾ 전자의 경우는 문화창작활동과 향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의 환경을 말하며, 후자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환경이라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화성을 말한다. 또한 전자가 시설이나 특정한 공간을 말한다면, 후자는 단독시설보다는 거리나, 가구, 또는 마을 등과 같이 비교적 넓은 구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교적 넓은 구역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8) 문화체육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3, p24-25

9) 김희진, ‘서울시 화랑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0) 황기원, “문화환경 가꾸기의 새로운 지향”, 21세기 선진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환경 가꾸기 전문가 워크숍

전자의 중요성은 문화활동을 영위하거나 그 활동의 소산을 전시하기 위한 ‘그릇’(container) 또는 ‘배경’(backdrop)을 형성하는데 있다. ‘문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문화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사회, 도시, 국가의 문화적 환경을 비교하고 과시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반면 이런 문화환경이 ‘문화화 된 환경’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문화는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문화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채 별도의 항목으로 남게 된다.

	문화를 위한 환경	문화화 된 환경
문화	· 인간의 뛰어난 지성적 · 감성적 활동과 그 산물 또는 예술	· 인간집단의 보편적 생활양식의 총화 · 보편적이며 가치중립적임
문화 환경	· 예술 활동을 수용, 전시하기 위한 전용의 환경 (공간이나 시설) · 일상 환경에 대비되며, 환경의 일부 · 계획적으로 조성 · 운용되는 비범한 환경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범용의 환경 · 자연 환경에 대비되는 모든 건조환경 내지 인경환경을 모두 지칭함 · 자연발생적으로 서서히 형성되는 평범한 환경
시간	· 비상	· 일상
공간	· 특수	· 보통
형태	· 예술의 창작과 향수	· 일상생활
사례	· 예술의 전당 등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 일상적 생활환경 · 평범한 산업환경

〈표 2-1〉 문화환경의 두가지 국면

자료출처: 서울시

반면, ‘문화화 된 환경’이 문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문화는 죽은 문화가 되면 지역자체를 정체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달리말해 문화적인 활동성(active)을 만들어 내지 못함으로써 지역 자체가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화화 된 공간’에 문화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문

화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며, 역으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문화화 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공간 및 문화환경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공간에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활동을 창출하고 공간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시 및 지역 문화정책의 한 축이라 한다면, 다른 한 축은 문화시설을 이용, 주변 지역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내, 문화적인 도시 및 지역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화 된 공간'의 '문화공간화' 및 '문화공간'의 '문화화 된 공간화', 이 양자의 변증법이 곧 도시 및 지역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되리라는 점이다. 사실 그간 이러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지역적이고 생활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문화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우선 시설적 환경면에서 문화예술 관련법에 기초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지역적인 문화환경을 고려, 각 자치구별로 시설을 할당하고 이를 건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환경 및 문화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 문화시설은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을 뿐, '문화화 된 공간'을 조성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대부분의 시설은 지표적 만족도에 치중한 나머지 설치하기 편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문화화 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대부분 시설은 문화활동 면에서도, 문화화 된 공간창출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공간적 환경면에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법>상의 지구설정과는 달리 <문화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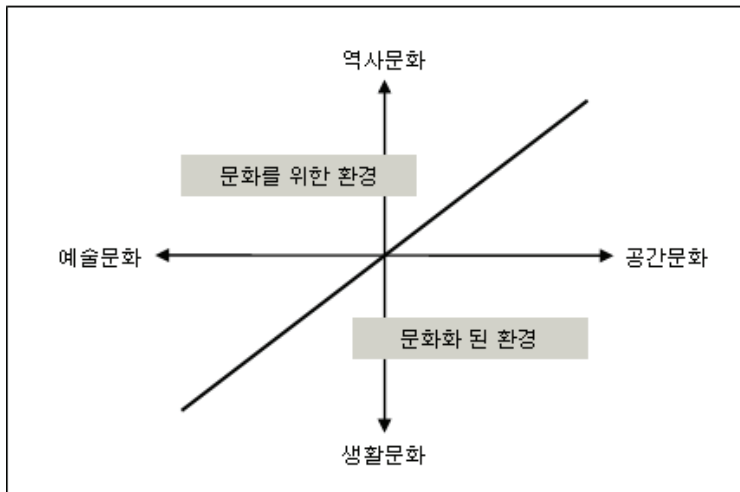
술진흥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 조성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화 활동 공간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문화거리’ 확장사업 또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¹¹⁾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8년까지 전국의 37개 마을을 시범문화마을로 지정한 ‘문화마을’사업은 지역 내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공간정책으로 평가되며,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상에 지정된 시범도시로서 문화도시 또한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대표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정부로서 서울시는 그간 공간차원에서 도시환경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무엇보다 그러한 노력은 전통적인 가옥과 근대적 유산물을 보존하려는 정책과, 역사문화 탐방로와 같은 문화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등과 같이 시민생활공간 속에 문화를 접속시키려는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나 공무원, 단체종사자 모두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의 개최 또한 문화화 된 공간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제영화제 하나를 통해 부산을 영상도시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춘천 또한 <국제만화임

11) 문화지구는 2001년1월12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제 10조 2항은 “1.문화시설과 민속공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01년 인사동 지역을 문화지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다.

축제》를 통해서, 광주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 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함평의 <나비축제>등은 함평이란 지역적 특성, ‘문화화 된 지역’의 이미지를 잘 살려 함평 자체를 마케팅 하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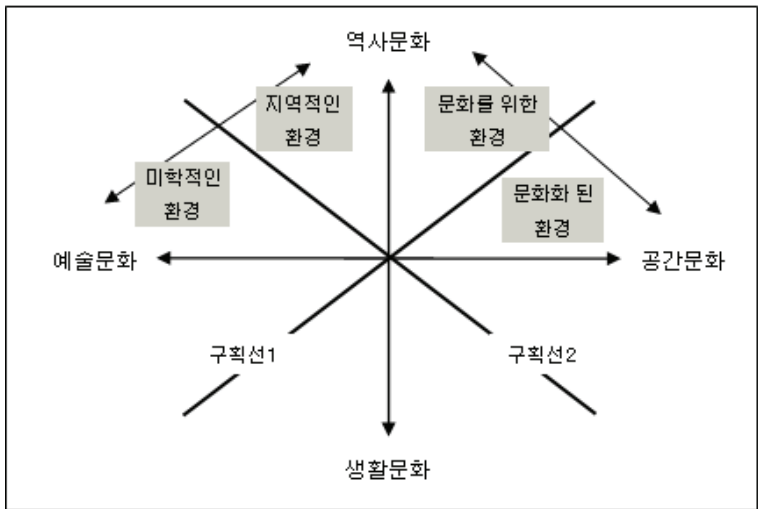
2.1.3 문화환경 종류와 범위

문화환경은 이와 같은 문화의 영역배치도 내에서 다양하게 구성된다. 우선 문화 환경은 익히 알려진 대로 ‘문화를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culture)과 ‘문화화 된 환경’(environment through cultu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문화나 예술문화는 ‘문화를 위한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간문화나 생활문화 등은 ‘문화화 된 환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환경은 작성된 문화유형의 배치도 (<그림2-2>, <그림 2-3>)를 따라 다음 <그림2-4>과 같은 구분선을 갖게 된다.



<그림2-4> 문화환경 영역: 문화를 위한 환경 / 문화화 된 환경

또한 문화환경은 보편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중심으로 ‘미학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전통문화나 예술문화, 생활문화 중 대중문화 등은 보편적인 것, 미학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문화, 공간문화, 하위문화 등은 ‘지역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그림2-4>에 대입하면, 배치도는 다시 <그림2-5>과 같이 그려지게 된다.¹²⁾



<그림2-5> 문화환경 영역: 미학적인 것 / 지역적인 것

이로써 문화환경의 영역은 네가지로 구획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획된 영역 안에 문화환경의 형태가 배치된다.

문화환경의 형태는 우선 세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점적인 시설영역이다. 예컨대 공연장이나 전시장, 공원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면적인 지역영역이다. 여기에는 문화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지구’나 ‘관광특구’, ‘특화거리’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형이지만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12) 라도삼 외,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200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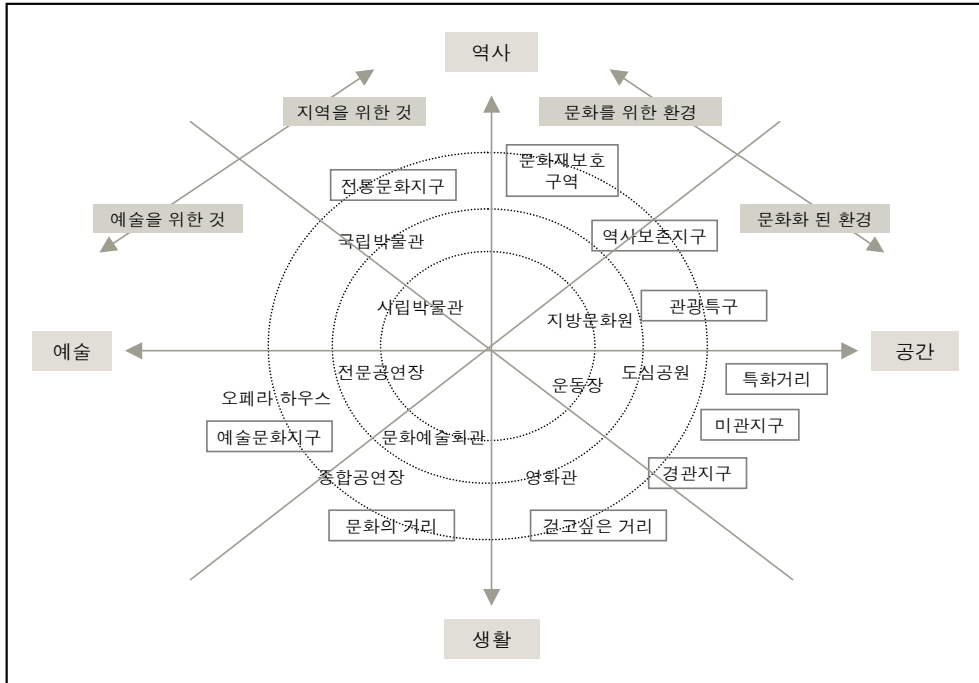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제·이벤트 영역’이 있다.

여기에 다시 문화환경은 그 대상권역이 어디냐에 따라 광역권, 권역권, 생활권 등으로 구분된다, 광역권은 전국 혹은 도시를 초월한 단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국제적 규모나 전국적 단위)을 말하며, 권역권은 도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생활권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그리하여 설치 목적, 규모 등에 따라 문화환경은 다시 <표2-2>과 같이 구분된다.

	광역권	권역권	생활권
공간적 범위	서울전역.전국규모	5대 권역	각 자치구별
설치유형	대규모 특수목적	중규모 문화생태성(전문화)	소규모의 편의성
설치목적	상징성	접근성	일상성

<표2-2> 규모별 문화환경의 구성

그리고 이상을 포괄하여 문화환경의 범주를 종합적인 매트릭스로 그리면 <그림2-6>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그림2-6>은 모든 문화환경이 배치된 종합적인 구성도라 할 수 있다.



〈그림 2-6〉 문화환경의 영역과 범위

자료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4 문화공간과 문화시설

그동안 서울시의 문화적 공간정책은 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향수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공간의 인위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 요컨대 이 공간은 전문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공간이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가의 공간이다. 개념적으로 이 공간은 문화시설, 문화지구, 문화거리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고 관리된다.

1) 문화시설

서울시에는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립시립구의 문화시설들이 서울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근대 국민 국가의 문화적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각종 국립문화시설들은 모두 서울시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거대한 국립 문화시설들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 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거대하고 장기적인 문화투자를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립 문화시설들은 대체로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우리의 국립문화시설들은 근대 국민 국가의 문화적 기반으로 제 구실을 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시설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이 문화도시가 되려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중요한 문화시설들이 자리하여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문화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이 미비하고 관리체계가 미숙하여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 즉 지방자치체마다 문화시설의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았는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문화공간 정책이 시설의 외관을 짓는 데만 관심을 쏟은 결과다. 사실 문화공간은 시설물보다도 그 운영프로그램의 질과 수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건축과 함께 프로그램 운용과 관리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서울시의 문화공간 정책이 문화시설의 설치에 국한되는 것도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다. 문화공간의 개념이 제도화된 시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이외에 시민들이 즐기고 활용할 다양한 대한문화공간도 문화시설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폭넓은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지구

문화지구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00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유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시설과 민속 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문화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지구 안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 및 업종들은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받게 되고 건축기준도 완화되며 국고보조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된 후 서울시가 2002년 4월 인사동을 문화지구 제1호로 지정·공포했으며, 대학로와 홍대, 신촌 지역 또한 문화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다음은 문화거리에 관한 것임으로 '2.2 문화의 거리'부분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2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 대한 연구는 특히 20세기 들어 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소마케팅측면이나 도시환경조성차원에서 주로 연구 되어왔다. 그래서 장소마케팅측면에서의 연구는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문화전략으로서 문화의 거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문화예술행정 및 경영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문화예술을 담는 하나의 거리로서 그 거리 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 및 특징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재 문화의 거리가 문화지구선정지역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문화지구의 개념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의 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한다.

2.2.1 문화거리의 개념

1) 문화거리의 정의 및 구성요소

90년대의 지방자치의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각 도시는 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갖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러한 독자성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강하게 나타나 정책적으로 도시 문화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가꾸어 가고자 주요한 문화환경의 질과 양을, 개선·확충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환경개선의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도시의 가로가 그 특성상 도시민의 왕래와 물

자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과 공간, 즉 물리적 공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가 벌이는 삶의 현장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문화적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개성이나 성격이 특정한 가로에서 각별히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가로를 <문화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의 거리는 “그 도시가 이미 갖고 있는 자생적 문화자원(自生的 文化資源)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正體性)이 있는 환경으로 그 가치가 인식되고 공유될 수 있는 곳. 또 그러한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발전되는 그 도시의 일정한 가로환경의 범역(範域)”이라 정의할 수 있다¹³⁾.

거리와 관련된 인적요소는 거리에 상주하는 운영자 그룹과 필요시 방문하는 이용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운영자 그룹은 주인, 이용자 그룹은 손님으로 공연시설의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가 단적인 사례이다. 언뜻 인적요소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문화 활동은 일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수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리의 문화화는 그러한 주인의 계층을 염두 해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용을 유발하는가 하는 것이 문화거리 조성의 주된 목표중의 하나이므로 거리조성은 이용자 그룹의 취향이나 이용행태를 최대한 고려해야한다.

거리환경의 물리적 요소는 가로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대상 그 자체와 이들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분위기 및 이미지로 구성된다. 가로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도로와 건물을 기본으로 하며 건물에 해당

13) 문화관광부,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과 사례”, 1993

되는 부분은 건물의 전면과 층고(層高), 접촉면적간의 비례관계, 전반적인 건물군의 집합적 형식미 등이 사람과 실현(實現)활동에 직접 관련된 도로(차도와 인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로의 재질, 방향, 색채, 너비, 경사, 길이 등이다. 이들이 거리의 물리적 환경의 성격과 개성을 일차적으로 결정짓는다고 본다. 건물내부의 기능도 거리구성요소의 하나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특히 거리에 연계된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은 거리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라 할 수 있다. 그 외 가로등, 쓰레기통, 공중전화부스, 벤치, 간판 등 가로 장치물과 가로수, 공터 등도 거리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활동이란 거리를 활용하여 펼쳐지는 일상적 행위 및 행사 프로그램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거리의 문화화를 위한 주된 활동에는 거리의 주제를 활용한 거리축제가 있으며, 거리축제는 주말을 이용한 일상적 축제프로그램에서부터 국제적인 도심거리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화의 거리조성 시에는 축제 프로그램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¹⁴⁾

이 같은 기본적인요소를 바탕으로 구성의 특성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의 3가지 기본적인 요소 외에 문화거리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실제적 요소로는 다음의 6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문화자원으로서 해당거리 나름의 문화적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물이나 장소, 역사나 문화프로그램 등이 그 지역의 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리나 문학속의 배경이 되는 거리, 유명인사와 관련되는 장

14) 김주영,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학위논문, 2003, p9-10

소라든지 이미 알려진 유명한 건물이나 활동이 있는 거리 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요소로 인해 그 거리가 유명해지고 그 거리에 몰려드는 사람과 지역의 문화가 합쳐져 구체적인 문화의 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문화거리를 찾는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시설로써 공공안내, 거리의 환경유지서비스, 통신 및 체신, 광고 및 안내체제, 행사의 유도, 적절한 재정지원, 주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화의 거리가 적절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서비스지원이 중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문화의 거리에서는 정보서비스로 일컬어 질 수 있는데 거리의 문화활동이나 그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문화의 거리로 모이게 된다.

넷째, 가로의 물리적 환경인데 문화거리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다양한 규모와 기능을 가진 문화예술 시설이 물리적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광장, 공원, 가로수, 간판, 기념물, 주점, 공중전화와 같은 물리적 요소들도 직·간접적으로 가로 문화의 형태와 인식을 좌우하는 일차적 요소이다.

다섯째, 행사와 연출이다. 문화자원은 상대적이며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의미부여의 과정과 연출이 적절히 배합되지 않으면 자원의 재고 가치가 소멸되기 쉽다. 그러한 상대적 가치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행사와 연출을 통해서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개념 있는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행사, 전시, 공연, 페스티벌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의 기획연출이다.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문화거

리가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활동을 전승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이건, 단기 적이건 그 공간과 장소에 체류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자주 들르는 형태의 체류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일련의 문화행사와 나아가서 오락, 행락, 여흥 프로그램이 항시 변화 있게 제고될 때 문화의 거리가 살아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문화예술의 거리는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해서 저절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계기나 문화활동을 복원하고자 하는 주민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일련의 도시개발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도시의 특성가로를 지정하고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되는 업체를 유치시키며 주기적인 축제나 행사를 도입하여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새로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센터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하여 문화환경 및 문화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기존 가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질적 자원을 염두 해 두고 가로의 장치물을 세련되게 개선하기도 하고 건물의 전면을 순화시키기도 하며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선도적인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한다. 문화의 거리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성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문화자원 및 환경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질을 높여주고 계획적인 활성화 대책이 함께 하여야만 그 거리는 독자성을 띄게 되고 사람들도 이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2.2 문화의 거리 현황 및 유형

문화의 거리는 1~3km 정도의 가로공간에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조명·상징조형물·야외공연장·의자·쓰레기통·디자인된 보도블럭 등 시설설치와 거리문화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연출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근거 및 주체는 자치구의 방침으로 시행되었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인사동통문화의 거리 등 총 21개소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있다.¹⁵⁾

결국, 그 지역이 이미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인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로서의 문화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의 경제적인 자원이자 이미지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활용되어야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 서울시 문화의 거리 현황을 보면 그 거리를 특성화하는 주된 매개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이름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구성 내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의 거리이다. 역사의 거리는 전쟁이나 혁명 등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 및 문화유적에 의해 명소화 된 거리로서 고도(古都)의 문화유적지나 혁명 사적지 등을 명소화한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거리는 주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던 거리는 물론, 궁궐이나 감옥, 읍성, 성당 등의 역사적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명사의 거리는 작가나 음악가, 미술인 등 유명한 작가·예술인을 비롯하여 정치가나 과학자의 생가나 집필 장소, 작품의 배경 공간 등

15) 김주영,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학위논문, 2003, p13-14

명사와 관련하여 형성된 거리로서 특히 세계적인 명사를 많이 배출한 유럽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소월의 거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예술시설이나 다양한 형태의 거리 축제나 공연 및 전시행사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특화 거리로서 흔히 말하는 예술적 행위, 즉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요소를 거리의 구성과 연계시킨 것이며 여기서의 예술이란 인간이 하는 활동을 미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유사한 예로는 서울 예술의 전당 주변의 거리,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덕성여대 근처의 문화예술의 거리를 들 수 있다.

넷째, 특정 업종 또는 연관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적 ‘특화거리’를 상업의 거리라 할 수 있는데 웨딩의 거리, 가구단지(또는 거리), 인쇄골목, 먹자골목 등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리를 명소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공간적인 형식으로 구분해본다면 크게 가로형과 센터형의 거리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가로형 거리란 특정가로에 따라 문화시설과 활동이 당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선형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라마다 전통적인 가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로 뉴욕의 소호거리,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지구, 파리의 몽마르뜨 거리, 비엔나의 음악거리, 요코하마의 모토마찌 패션의 거리가 대표적인 예이다. 센터형 거리는 가로 내의 음악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커뮤니티 시설, 문화, 예술 관련 상점들이 모여 있는 경우이다. 각종 문화활동과 시설이 하나의 단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구성되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단지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런던의 바비칸센터, 볼티모어의 찰스센터, 파리의 퐁피두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센터형 거

리는 주로 넓은 광장이나 수퍼블럭, 대규모의 공원, 하천변 등에 자리하는 것이 보통이며, 단지 내의 모든 문화, 상업, 업무, 숙박, 교육, 공공행정 등 일체의 관련되는 활동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대부분 가로형 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의 문화의 거리의 경우, 그 대부분은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거나, 지역적인 문화적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가 없으면, 정책적인 지원책과 유인책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저기인 문화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가장 일차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문화의 거리의 경우, 특색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입주시키는 한편, 축제와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우선 존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문화의 거리는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선정된 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성이나 예술성, 문화적 보편성과 접근성마저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역적 특성에 고려한 거리정책이 필요하며, 이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적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입주시키며, 문화예술 축제 및 이벤트·행사 등을 벌임으로써 지역적인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¹⁶⁾

16) 원제무 외,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천과정”, 백산서당, 2000

거리명	구간(km)	위치	비고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2.2	혜화동-돈화문	종로구
인사동 전통 문화의 거리	0.6	안국로터리-대일빌딩	종로구
숙대앞 문화의 거리	1.1	숙대입구-효창공원입구	용산구
소월의 거리	3.0	왕십리 로터리-성동교	성동구
온달의 거리	2.4	능동로군자역-건대역	광진구
문화의 거리	1.5	경희대앞 회기로변-회기동 60일원	동대문구
영화의 거리	1.5	돈암동4거리-정릉동	성북구
전통문화의 거리	0.8	삼선교로터리-성북동	성북구
강북 문화예술의 거리	3.5	덕성여대앞-4.19로터리 -아카데미하우스	강북구
문화예술의 거리	2.2	파리공원-오목교	양천구
웨딩의 거리	0.7	이대역-아현역	서대문구
가구의거리	0.5	북아현동135-4 - 775번지	서대문구
구로 5동 거리공원	0.8	우성아파트-신구로 주유소	구로구
중대주변 문화의 거리	0.8	흑석유수지-중앙대정문	동작구
낙성대 문화의 거리	1.1	낙성대 입구-서울대 후문	관악구
문화예술의 거리	1.3	예술의 전당-서초역	서초구
패션문화의 거리	3.18	성수대교 입구	강남구
정보통신의 거리	1.09	테헤란로-청담동 4거리	강남구
가구문화의 거리	0.85	강남구청 4거리-영동시장거리	강남구
무역,금융의 거리	4.46	강남역-삼성역	강남구
선사문화의 거리	0.8	암사동선사주거지역-고덕주유소	강동구

〈표2-3〉 2006 문화거리의 조성 현황

자료출처: 서울시

3. 서울의 문화거리의 발전과정

3.1 정책 변화

‘문화도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시의 공간정책에서 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60-1970년대의 파괴적 개발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1980년대에도 서울의 공간정책을 좌우한 것은 효율과 이윤의 논리였다, 1980년대에는 ‘대학로’라는 공간이 조성되기는 했으나, 그 의도와 결과가 과연 문화적인 것이었는가는 회의적이다. 아마도 서울시에서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과 함께 ‘정도 600년’이라는 역사적 계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관심이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관심이 과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란 단순히 문화적 외양을 갖춘 도시를 뜻하지 않는다. 문화도시는 무엇보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아직 문화도시와는 거리가 먼 도시이다. 중요한 문화시설들은 교통이 불편한 산속에 들어앉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온통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로 쌓여 있으며,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인 실정이다.

공간정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정책이 아니다. 모든 공간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살아가는 자리이기도하다. 이런

점에서 공간정책은 반드시 문화정책이기도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의 문화는 흔히 말하는 ‘문화예술’로서의 문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문화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 자체를 뜻한다. 즉, 문화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문화정책으로서 공간정책은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찾아내고 구성하는 정책을 뜻한다. ‘문화도시’는 도시의 조성 및 운영의 모든 면에서 ‘문화적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문화정책으로서 공간정책은 그 기본적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공간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까지 서울시의 공간정책은 ‘도시계획’의 틀을 통해 입안되고 집행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크게 3단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 계획으로써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중간단계의 도시계획으로써 도시계획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있다. 최하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결정고시, 지적고시, 사업시행계획, 연차별집행계획 등이 있다. 각 단계별 도시계획은 내용, 법적 구속력, 상세성의 정도, 계획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¹⁸⁾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서울시의 공간정책은 우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이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의 공간정책이 과연 문화정책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17) 라도삼 외, “문화공간 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21

18) <http://urban.seoul.go.kr/pds/>

서울시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이루어야 할 ‘7대 실현목표’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서울시의 공간정책은 문화정책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에서 서울시의 공간정책은 현저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2011년 계획에서는 문화정책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각각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정보통신계획, 산업경제계획, 주택계획, 환경보전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의 1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정책은 이중 ‘사회개발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조직구조상에서는 문화관광으로, 도시계획에서는 문화체육으로 묶여있다. 어느 경우에도 문화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서울은 아직 정책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1년 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1년 만에 2021년 도시계획을 작성했다. 이유는 2011년 도시계획이 목표에 아직 달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목표가 서울의 발전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도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작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문화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화가치 비중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더 이상 끼워 넣기 식의 공간정책, 문화정책은 불가능 할 것이다.

3.2 구조 변화

서울은 급격한 변화를 실감해 왔다. 그런 변화의 한 가운데 서울은 현재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의 공간구조 형성의 역사성을 관찰한 문화연대는 서울 공간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역사적인 원형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억압하고 해체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또한 평면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거점을 중심으로 하위의중심거점(예, 청량리, 신촌, 영등포 등)이 다핵을 이루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 ‘탈역사성’과 ‘탈형식성’에 있다”라고 지적한다.¹⁹⁾ 동양적인 고전의 미학도 근대적인 서양의 기하학적 미학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은 서울의 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종사자, 공무원 모두 문화도시로서 서울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바 있으며, 서울이 문화도시가 아닌 이유에 대해 ‘도시공간 자체가 비문화적이다’(33.5%)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²⁰⁾ 예술이나 전통 등과 같은 부분으로서 문화가 아닌, 삶과 공간으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으로서’문화가 바로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조명래 교수는 ‘서울의 현대사회적 공동체적 도시성은 유연적 사회성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역사성, 서구의 시민사회성의 유입,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잡다양성에서 기인 및 형성된다고 볼

19)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18

20) 김수현 외,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144-147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즉, 서울은 고대 문명의 발상과 함께 삼국시대, 조선시대, 근대 및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대를 거치면서 이방인 및 서구 문화의 유입과 이들의 혼합 등으로 서울의 공간적,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포함하는 공동체로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은 오랜 역사적 변화에서 비롯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은 그 도시의 외형적 성장 및 변화의 역사적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문화적 정체성의 형성 및 변화에 기인되는 서울의 도시 공간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변화

조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주거의 변화는 그 도시적 문화의 형성, 발전 변화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생성, 발전, 소멸 등의 가장 밀접한 문화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통적 문화 및 독자성, 주체적 문화의 중심에서, 구한말 및 일제 통치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및 외국인의 많은 유입에 의한 이방인 문화의 본격적 유입은 우리의 전통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의 특질을 변모시켰고, 한국동란, 경제 성장기, 그리고 세계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전통적이고 전승적인 문화는 복잡 다양하고 외래적 문화와 혼합된 다양하고 변화적

21) 조명래 교수는 한국도시에서의 시민성과 공동체에 대하여 한국에 있어서 공동체적 시민성은 “공동체는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을 무대로 하면서 사적 부문과 제도적 부문을 가로질러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영역을 지칭하는 것”, 그리고 사회성에 있어서 “서구의 사회성은 합리적, 객관적, 공공적행위, 규칙적, 개인주의적, 형식적, 법, 계약적, 공공영역, 시민혁명, 시장화에 바탕을 둔 시민적 사회성을 표현한 반면, 동아시아를 비롯한 우리의 사회성을 습관적, 주관적, 집단적, 사회이해관계, 위계적, 담론적, 네트워크적 연결, 연고적 조직, 규범, 공공/사적 영역의 혼재, 계획적 발전, 산업화 등에 바탕을 둔 유연적 사회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명래, “도시시민사회의 이해”, 공간과 사회 2001년 통권 제 16호, p179-181

인, 문화로 변모해왔다.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 변화는 도시의 성곽 내 인구 20만 내외의 고대 농업도시에서 출발하였으며, 구한말에 이르러 나무터촌락 및 외국인 거주지등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상기능이 발생 및 증가하였다. 계층별 거주형태의 당시 구조는 궁궐을 중심으로 상류층 위주의 거주와 그 주위의 하류층 분포의 거주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던 서울은 일제시대에 이르러 인구 100만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 하였으며, 이때 일본인 거주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서울은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60년대에 이르러 인구 250만여 규모의 중주화 현상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때 해방촌, 난민촌, 월남촌 등의 유입인구에 의한 거주지 형성으로 서울 이외의 타지방 거주지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기도 하였고, 농촌인구의 대량 유입도 시작되었다. 70년대는 인구가 급성장하여 서울의 인구는 700만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도시 복잡의 해소책으로 위성도시가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 및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주문화의 변화는 80년대에 이르면서 현재까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주거문화를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난 30년 사이에 서울의 곳곳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다. 한강변에서 지천 변에 이르기까지, 또 관악산에서 북한산 자락까지 가릴 것 없이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른 계층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울의 전역에서 고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훼손되고 거대하고 획일적인 아파트들에 의해 도시경관과 지형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들어 친화경적, 자원절약형 등의 주거개념과, 생활권개념 등이 도입되면서,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나,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거공간 내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 상업공간

서울에는 재래식 시장에서부터 현대식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잡화상이 있고, 공구전문상가에서 의류전문상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문상가가 있다. 또 이웃을 주 고객으로 하는 동네상가에서부터, 전국의 상인 심지어 세계 각국의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가에 이르기까지 서울에는 실로 많은 크고 작은 상가가 있다.

업종에 따른 차이를 떠나서 재래식과 현대식으로 나누어 고려할 때 이 상가들의 문화적 차이는 확연하다. 우선 길보기에 지저분하고 불편한 재래식 상가에 비해 현대식 상가는 깨끗하고 현리하다. 재래식 상가가 주로 상거래 위주로 형성된 반면, 현대식 상가는 문화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유명백화점들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래식 상업공간은 점차 현대식 백화점과 몰로 재편되고 현대식 상업공간으로 향하는 시민의 발길이 점차 느는 추세이다.²²⁾

그러나 이 상황은 상업공간의 문화적 재편이하는 측면에서 진정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현대식 상업시설의 문화적 공간은 백화점이라는 상품 문화공간의 강한 논리 속에서 공공적 공간이어야 할 문화공간이 점차 사적 자본의 지배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반면, 재래식 상업공간은 그것이 지닌 매력과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문화적 성격을 갖추어 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래식과 현대식의 차이를 떠나서 현재 서울의 상

22) 이희정 외, “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p66

업공간은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에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에 지배된 공간들은 잠시라도 설 여유조차 배려하지 않는 공간이다. 서울의 상업공간에서 우리는 서울에서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3) 생산공간

서울시에는 여러 종류의 생산공간들이 있다. 도심만 하더라도 을지로의 인쇄업, 종로의 귀금속가공업, 동대문시장 주위의 의류업, 세운상가 주위의 전자제품업 등의 생산공간들을 볼 수 있다. 직접의 이익을 찾아서 서울로 찾아드는 소기업들은 여전히 많다.

도심의 생산공간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크고 작은 공장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곳에 재기업의 대형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자체가 바뀌는 큰 변화였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심공간의 재정비를 전면 개발사업에 의지해 왔는데 그것은 낡고 작고 초라한 것을 새롭고 크고 번듯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가 삶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식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적 맥락과 동떨어진 커다란 건물을 세우는 식으로 전개되며, 결국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 문화를 순식간에 없애게 된다. 이런 식의 재개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도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춘 삶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이 재개발의 이름으로 어떤 자취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생산공간으로써 가장 크고 유명했던 것이 ‘수출산업공단’, 곧 ‘구로공단’이었다. ‘공순이’와 ‘공돌이’, 그리고 ‘별방’으로도 유명했던 이곳은 서울의 탈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낡기는 했지만 산업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장 건물들은 무참히 헐리고, 그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어색한 외관을 뽐내는 벤처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다. 구로에서 그 공간의 역사를 찾아보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래의 생산공간을 계속해서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거와 상업이 중심적인 기능인 서울에 직접적인 생산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아서, 대신에 서울시는 이른바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암 새천년 신도시’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사업이다.

서울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삶의 자리를 문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구상이다. 낡고 작고 초라한 것들도 그 자체로 서울시의 역사이며 문화이다. 이 점을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문화적 향취가 짙게 배인 공간으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점에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도심부관리기본계획(1999)’과 최근에 새롭게 작성된 ‘도시계획조례(2001)’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상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²³⁾

23) 라도삼 외, “문화공간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34-35

4) 녹지공간

1990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공원계획의 비중이 증대된 시기이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공간의 적정입지와 적정면적의 확보와 확보된 공원녹지 공간은 기능 및 성격, 입지여건에 따라 적합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다. 또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있는 서울시는 조성된 공원녹지 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녹지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통한 고도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경관 조성에 여유가 부족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국민 소득이 증가 하면서 1991년에는 ‘대지안의 조경’²⁴⁾이란 독립적인 법조문이 건축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점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던, 1995년 IMF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로인해 조경뿐만 아니라 금융조정, 산업구조조정, 재정 통화긴축으로 인해 4저4고의 경제가 지속 되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부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제안하게 되었다. 평면설계의 다양화, 마감재의 고급화, 오션의 다양화, 인테리어 차별화, 서비스 강화 등 폭넓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건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산책로, 분수대, 테마공원, 테마광장, 수변 공간 등 조경설계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⁵⁾

이후 적극적인 공원녹지 조성 정책에 따라 여의도 광장의 공원화와 여

24)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 1991.5.31

제 32조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전의환, “지방의제 21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환경의식 조사연구”, 동신대학교학위논문, 2000, p57

의도 셋강 생태공원조성이 주를 이루었고, 공장, 병원, 학교 등의 이적지가 공원으로 재개발 되었다. 생태복원이란 키워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이로 인해 조망상태에 따른 아파트의 가격 차이와 조망권 침해소송 등이 이슈화 되었고 자연경관 이외에 조망권은 중요한 입지 조건이 되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서울시는 ‘공원녹지 확충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원녹지공간 확충, 도시조경수준의 향상, 산림생태계와 녹지관리체계의 개선, 시민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총 4대 분야에서 52개 사업이 채택하게 되었다. 그중 녹지공간 확충으로 여의도 공원, 영등포(OB)공원, 천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또 시가지 목화 및 조경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덕수궁 녹화거리, 용마인공폭포, 통일로변 인공폭포, 도심의 자연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산림생태기반 조성과 녹지관리체계 개선은 한강변의 녹화, 도시환경림 조성, 자연관찰로 조성, 산림생태계조사 등을 통해서 발전을 추구했다.²⁶⁾

2002년 월드컵의 개최로 다시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생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전환되어 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과거의 혐오시설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자연학습 시설로 변화되었고, 대표적인 공원으로는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낙천공원, 선유도공원을 들 수 있다.²⁷⁾ 이밖에 생활주변을 녹화하기 위한 공간조성 정책으로는 담장허물기, 마을마당의 조성, 옥상 녹화, 학교녹화, 도시녹지벨트조성을 위한 공항로변 수림대조성, 벽면의 녹화, 한강시민공원의 녹화, 강서 학습지공원 등이 시행되었

26) 신익순, “한국 조경법제도 30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2000

27) 서울시, “서울시의 공원녹지현황 및 정책방향”, 2005, p42

다. 이 같은 생활주변의 녹화 조성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녹지공간 및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2004년에 들어 가장 활발한 바람을 일으킨 키워드는 웰빙이었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웰빙의 개념은 점차 녹지공간에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다. 더욱이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시민들은 실내중심의 여가 활동에서 야외중심의 여가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과 쉼터, 한평 공원 등의 등장과 독섬의 ‘서울 숲’ 조성은 시민들에게 서울이 인간중심의 쾌적성과 친환경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강한 인식을 심었다. 무엇보다도 청계천 복원은 완전히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었던 공간을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업이 되었고, 조경의 역할에 대해 도시민의 인식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3 역사변화

3.3.1 도시구역의 변화

서울의 공간적 도시구역은 조선의 500년간 성곽도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 및 확장을 거쳐 왔다. 조선후기에 교통의 발달로 성곽도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일제 때 행정조직, 행정구역의 개편작업을 거치며, 해방 후 교역의 확대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주지역 및 행정구역은 도시 기능적, 통치적 영향권을 의미하며, 이들의 확대는 주변지역으로의 도시 문화적 확대 및 인접지역 문화의 흡수, 교류, 등의 직·간접적 영향을 의미한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교통중심으로의 도시환경변화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인접지역 그리고 타 지역과의 문화의 다양하고 급속한 교류를 가져왔고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의 야기 및 변화시켜왔다. 다른 한편 서울을 여백 없는 교통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삶 속에 ‘빠름’을 창출하도록 만들었으며, 문화의 향수 및 문화활동에 있어 지역보다는 도심이나 부도심의 소비적 공간을 중요시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적 정체성 및 지역문화는 빠르게 상실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정체성 없는 도시로 변화토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은 서울이 선택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라 보여 진다.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등의 정책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돋보이는 점이며, 이는 곧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활용한 문화환경 조성의 긍정적 사례를 보여준다 하겠다.

1)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변화

그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는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변해 왔다.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4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용산과 청량리·왕십리, 상암, 영동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 그리고 4대 생활권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서울의 공간구조 상에 나타난 중심지 체계는 다음과 같다.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치구
도심권	-	용산		한남	종로구, 용산구, 중구
동북권	-	청량리 왕십리	망우, 미아, 성계	전농,군자,금호,화양,중곡,구 의,목동,면목,중암,동선,석관, 수유,방학,쌍문	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 중랑구,성북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
서북권	-	상암	연신내, 신촌, 공덕	불광,응암,남가좌,홍제,아현, 서교,합정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서남권	-	영등포	목동, 대림	신정4거리,등촌,신월,신정,화 곡,공향,오류,구로,가리봉,독 산,시흥,신길,신풍,상도,노량 진,신대방,흑석동,신림,봉천, 낙곡사거리	양천구,강서구,구고구,금 천구,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	영동	사당·남현, 잠실, 천호·길동	방배,양재,이수,도곡,개포,수 서,가락,문정,암사,고덕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 동구
계	1	5	11	53	25

〈표3-1〉 서울의 중심지 체계

자료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러한 다핵구조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 권역으로의 분화를 창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주불균형의 문제와 권역별 불균형이란 문제를 초래 하였다. 전통적인 시가지인 도심권과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등은 인프라와 생활여건 면에서 동남권과 차이를 드러내며 문

화활동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분화되는 다핵성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또 거리조성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28)

2) 경제·지리적 중심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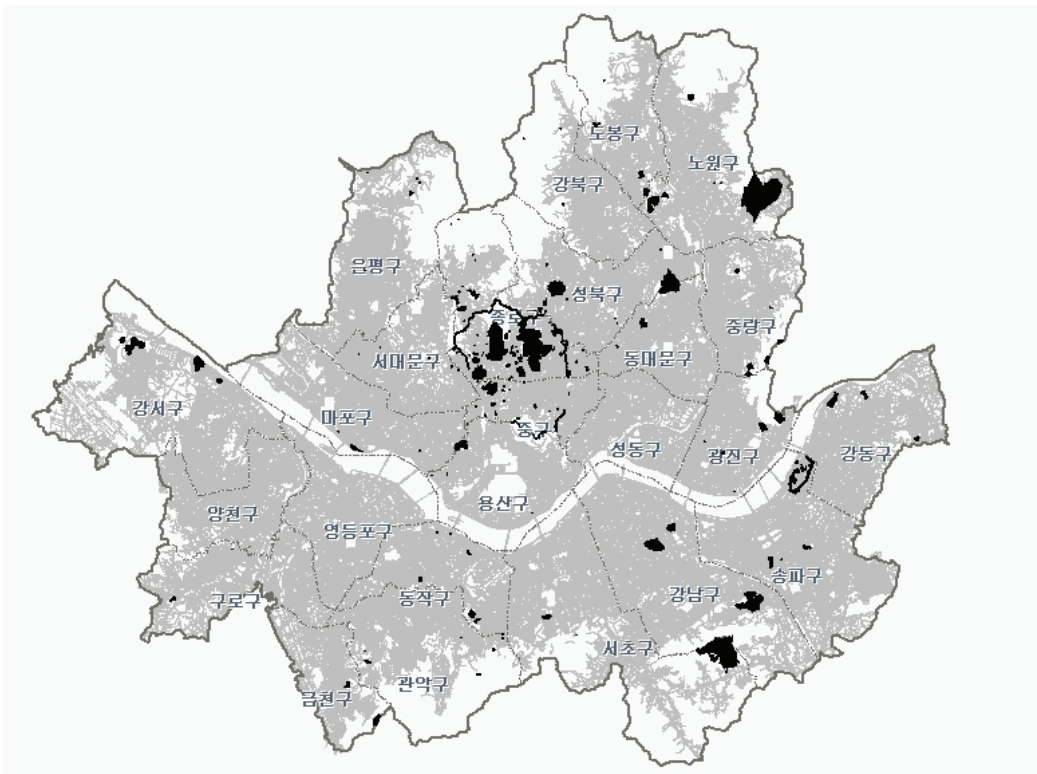
서울은 우리나라 중심에 의하여 각종 기능이 집중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중심지 역할, 통제 및 조절까지 담당하여 국가의 수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서울의 전국적 도시규모의 집중도를 보면, 인구가 수도권대비 48%를 점하고 있으며, 전국대비는 22%의 수준에 이른다. 또한 산업체 수는 전국대비 25%에 해당하는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에 전국 및 수도권 산업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되고 있으며, 금융업, 연구개발업, 대기업 등의 구상기능 비중이 특히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자본축적체계의 세계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추세로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중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관련 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쇼핑문화의 변화로 동대문 의류타운이 형성 되는 등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여건 속에 있는 서울은 공간적 거대규모의 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는 타 도시와 비교한 우수한 경쟁력과 이들로 인한 각종 기반적 여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8) 장영희 외,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 연구”, 서울시전개발연구원, 1996, p29

3) 많은 전통문화 보유

오랜 역사의 고도로 많은 전통문화자원,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을 제공한다. 고대국가인 백제의 수도 위례성 때부터, 조선조 도읍지 한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통 문화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도시 서울 구축에 큰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그림 3-1〉 서울 문화재 지정현황

자료출처: 서울 지도서비스 (<http://gis.seoul.go.kr/>)

3.3.2 도시계획과 공간 개발에 따른 변화

도시적 삶에서 도시구역, 즉 삶의 영역은 그 생활의 형태, 성질, 범위 등과 밀접하며, 이러한 구역의 변화는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문화적인 형태도 그 도시적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끌리게 된다.

1394년 조선의 왕도 결정 이후부터, 구한말, 그리고 일제를 거치면서 서울은 공간계획적인 도시발전 형태를 보인다. 특히 일제(1936)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시작되었고, 해방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획적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일상환경변화	도시구역 변화
-인구의 급증 → 거대도시화 -농촌중심주거 → 상업주거 → 업무중심주거 -전통주거문화 → 현대적 주거문화 -단독주택 → 아파트 중심의 거주 문화	-성곽도시 → 붕괴 및 구역확대 -교통발달 → 주변과의 교류 및 주역의 확대
공간계획적 개발 변화	공간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변화
-공간적 도시화 유도 -구역 내 공간적 개발계획 중심 → 문화도시계획, 환경, 삶의 질적 향상의 추구로 변화	-정치행정 중심지 → 식민지 중심지 → 전후 복구 → 국가성장의 중심지 -도심기능의 분산(다핵화, 위성도시)

〈표 3-2〉 서울 도시공간의 변화

즉 서울의 공간 계획적 특징은, 일제부터 공간적 도시화를 유도하였으며, 최근 현대에 와서는 공간적 도시화의 개념에 다양한 분야별 변화양상, 즉 공간적 확대가 아닌 친환경적, 지속 가능형, 삶의 질적 변화, 문화도시 등등의 계획의 기초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도심재개발이나 ‘인사동문화지구 지정’, ‘시청앞 광장 조성’, ‘청계천

복원' 등은 새로운 도시의 문화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간개발 사례라 할 것이다.

3.3.3 공간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변화

서울의 공간적 위치와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은 조선의 정치행정의 중심지에서 구한말 정치, 행정, 재정, 군사, 상업의 중심지로 변화하였으며, 국가 중추기능을 상업이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서울은 한반도 식민통치의 거점기능화 지역이 되었으며, 이를 위한 시설 등이 집중 배치되어 그들의 침략적 행위와 식민지 수탈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후 한국동란 후에 서울은 전후복구의 중심기능과, 이후 국가 경제성장의 최고 핵심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한반도 경제의 성장과 억제를 좌우하였다. 서울의 도시내부에서의 중심기능은 60년대 이후부터 분산 및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의 구조는 단핵구조에서 다핵심 구조 및 위성도시로까지 기능의 분산 및 확대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제시대	해방 후-50년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거주 · 행정구역 조정→일인거주 본격화 및 일인거주지 격리 · 인구: 20만→100만 도시로 성장 · 대규모 주거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유입(난민, 농촌인구) · 해방직후 인구 100만 · 50년 170만: 중주화 현상의 기틀 · 60년 245만 · 난민도시정착: 무허가판자촌 -해방촌, 월남촌 등 관북, 평안도식 가옥구조의 주거문화 · 농촌인구의 집중 · 종로구 중구의 인구수용 능력 최고점 · 전후 여성인구 탁월
도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 행정구역 개편 · 관할구역:36.18km², 한성부의 1/7로 축소, · 1936: 133.914km² · 1943년 구제 실시: 종로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확장: 267.8km²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망계획수립 · 기존 가로망의 연장선상에서 마포, 동대문, 청량리, 회기동, 왕십리 방향 노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복구
공간· 도시계획 및 개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도시화 유도 · 도시계획 수립 · 토지구획정리사업→근대식 주택개발 · 공장시설위한 토지용도계획: 도시 주변→경공업, · 도심→상업기능 집중배치 · 1934년 조선도시계획령→1939년 용도계획지역 지정 · 1936년 최초의 근대적 도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의 정체 및 시작 · 6.25로 도시계획 일시중지 · 1952년 도시계획용도제, 토지구획정리사업 -향후 서울도시 구조 좌우하는 근본을 제공 · 전후 서울을 공업도시로 발전의 의도 · 용도지역지구제 -상업·공업지역 확대 -주거지역축소 · 택지난→풍치지구 해제→녹지파괴→무허가 불량주택지구로의 개발 · 토지구획사업 -1차 도심지에 집중 -2차 도심 밖으로 확대

경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사회의 기초 및 시작 · 토지용도계획→초기 산업사회적 도시성장 · 근대적 다양한 공업시설 · 식민통치시설 집중, 학교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 <p>일제하의 연장에서 정지된 상태의 모습</p>
도시적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통치기능 집중 → 상공업 발달 ·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장과 혼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하 도시성장 유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 복구적 특징

〈표3-3〉 서울 공간의 역사변화

구분	60년대-70년대 말	80년~2000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급성장 · 77년 700만 인구 · 위성도시성장 시작 · 무허가불량주택분산, 택지개발 · 도심거주인구 공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구 공동화, 거주지 계층화 · 80년대 대학생 급증 · 80년대 중반 인구정체 · 대규모APT. 택지개발-거주지의 계층화 · 88년 5대 신도시 · 재개발계획과 인구 동동화 지속 · 생활권개념의 도입(생활편익시설, 서비스의 평준화요구) · 한강친수공간화,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개편 ·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화 뚜렷
도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역의 확장 -주변농촌지역편입 -1963년 593.75km² -1973년 605.3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내 용도지역 확장 · 1986년까지 토지구획사업: 서울면적 20%의 123km², 현재 서울시 택지면적 절반 초과 · 내부도로망과 거주지역의 공간적 구조가 주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대중교통시대 · 74년 청량리, 서울역 지하철 개통 · 지하철 2호선 개통: · 자동차전용도로필요성-도로망네트워크계획(80년 도시개발장기구상) · 버스교통망의 거주지확대와 일치가 지하철이 담당, 승용차 증가: 교통도시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도시로 변화 · 토지구획사업으로 내부도로망 주도됨 · 방사형교통체계가 격자형으로 · 대중교통지향 역세권 개발 · 도시고속도로망 · 대중교통이 버스→지하철
공간· 도시계획 및 개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시대, 성장의 시대 · 66년 도시계획: 현재 서울도시공간구조 결정계기 -4대문내 도심, 20부도심: 단핵조직적 공간구조 -각 지구마다 지구중심과 부도심 -교통계획: 가로망, 철도, 수문, 공항 계획과 가로망체계 확립 · 71년 개발제한구역 도입-인구집중 및 가속화 유도 · 78년 도시계획변경 단핵-3핵 또는 다핵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의 변화, 기조의 변화 · 구단위 도시계획 · 올림픽계기 두가지 사업 한강개발, 2000 향한 도시구조개편: 도시기본계획변경 불가피, 다핵도시개발 · 주택200만호 · 90년 도시기본계획고시 -강남, 강북 균형발전, 다핵공간구조, 공원 녹지체계, 역세권개발 등 · 97년 2011도시기본계획공포 지속가능형, 시민생활환경정비, 지구촌시대 대비의 공간구조 개편등 ·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민참여 확대

구분	60년대-70년대 말	80년~2000
경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과 억제 -경제 성장과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 제조업에서 서비스 관련, 정보등 2차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벤처 집중 등 탈공업화 • 고용의 다중심화로 변화 • 탈산업사회, 정보화, 지속가능형, 지구화적 경제 체제
도시적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의 부산 • 도시활동 주요기능이 지하철 교차 지역으로 분산 • 도시기능의 분산과 이전: 여의도 개발, 과천개발, 안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의 분화 및 확대 • 도시기능의 분화: 고용 중심지가 단핵에서 다핵으로 • 교육업무기능의 강남으로 확대 이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사회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내부공간적 분화현상 -단핵중심도시-> 3개의 다핵고용중심지: 상호 유기적, 독립적 의존적 유지의 발전 -거주지역->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화 현상 뚜렷

〈표3-3〉 서울 공간의 역사변화

자료 : 서울시 행정과

3.4 서울 문화의 거리 특징

3.4.1 서울 문화거리 특징

1) 도시집중의 문제

서울은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성을 상실한 체 정체성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도시로서 그 대부분의 자원이 도심권과 강남을 비롯한 동남권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지역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자원을 도시에 집중시키고,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를 형성함으로써 각각의 지역이 고루 발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⁹⁾

2) 문화 인프라의 부족

문화활동을 위한 환경을 추구하는 서울이 지닌 문제점은 문화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인구가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 밀집도가 높다고 보았을 때, 서울이 지니고 있는 문화시설 수의 한계는 단지 문화활동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서울시 공공부문에서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가꾸어 가고자 주요한 문화환경의 질과 양을, 개선·확충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환경개선의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의 거리는 도시의 가로가 그 특성상 도시민의 왕래와 물자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과 공간, 즉 물리적 공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도

29) 김규원 외, “도시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p33

시민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가 별이지는 삶의 현장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문화적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개성이나 성격을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로 하여금 느끼고 공감 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이 불가능 한 것이다.³⁰⁾

3) 비문화적인 공간계획과 시설입지

서울은 역사적 가치로 보았을 때 수업이 많은 문화적 가치들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인사동, 삼청동, 대학로,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의 공간은 지금까지 서울의 시간이 남긴 흔적들이다. 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다양한 규모와 기능을 가진 문화예술시설이 물리적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광장, 공원, 가로수, 간판, 기념물, 주점, 공중전화와 같은 물리적 요소들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과 다양함을 지닌 이 같은 문화공간도 이윤창출에 급급한 졸속 계획으로 비문화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문화시설들은 생활권 단위와 떨어져 있어 접하기 불편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계획하고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들 간의 상호연관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0) 박성봉,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p21-22

3.4.2 서울 가로 환경 및 가로경관 관련 사적

1) 가로망의 건설과 정비 (1930-1960)

서울 시가지 계획령이 수립되어 가로망이 최초로 고시된 건 1936년의 일이며 이는 일제말기 조선총독부 도심부 소개정책 아래 일부 신규 도시계획도로의 건설 및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 6.25전쟁은 당시 서울 상업지대의 대부분을 소실 또는 파괴시켰으며 사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가로망의 변경과 확충은 어느 정도 실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 가로망계획의 기본 골격은 1960년대에야 비로소 형성되었고 이 기본 골격 역시 사회여건 변화와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1970년대 도심 집중이 가속화되고, 도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어 이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서울 도시공간 구조를 생활권을 토대로 한 다핵도시구조의 가로망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 전용도로와 도심 우회 순환도로 등이 건설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말기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서울의 가로망계획은 주로 신규가로 건설과 재정비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³¹⁾

2) 미관지구의 지정 (1960-1980)

가로망계획과 더불어 가로경관관리의 시초가 된 것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시 용도지구의 하나로 미관지구가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 즉, 1966년 건설부고시에 따라 소공동에서 남대문을 거쳐 을지로까지의 13만 1,539㎡를 남대문 집단미관지구가 최초로 지정되었다. 같은 고시로써 중

31) 목정훈, “도심 가로교통시설변 녹화 및 미관(경관) 개선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제 4권 제 1호, 2003, p111-126

양청 앞 광장에서 서울역전 광장 등 4개 노선 총 연장 4,548m에 대하여는 1종 미관지구로, 또 서울역전 광장으로부터 김포가로 기점까지와 의주로 2가에서 지금의 양화대교까지 2개 노선 총 연장 약 13.7km에 대하여는 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미관지구의 추가지정과 부분적인 조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집단미관지구와 노선미관지구의 형태로 지정되었고,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용도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건축물의 앞면과 옆면의 최소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로변 가로녹화와 가로환경부분은 미관지구의 관리 항목이 아니었다. 2001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³²⁾

3) 지구단위계획(중전 도시설계, 상세계획)에서 경관계획(1980년대 이후)

도시설계는 서울도심부 주요간선가로변 도시기능과 미관증진을 목표로 1980년 건축법에 의해 제정되었고 당시 주요 간선가로변(세종로, 태평로 지구, 종로지구, 을지로지구) 도시설계가 이루어졌다.³³⁾

도시설계의 대상 범위는 1980년대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1991년 도시설계의 법적 체제정비를 통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구역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 법정개정을 통해서도 도시 등의 개발사업구역 등을 포함하는 대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써 상세계획지침이 제정되었다. 현재는 2000년 7월 중전 도시설계상세계획제도가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³⁴⁾ 중전 도

32) 서울 도시 계획국, 도시계획통계: 시정주요지표, 2001, p43

33)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이해와 계획수립방법", 2001, p67

시설계와 최근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계획관련 내용상 큰 차이점은 기존 도시설계에서는 구역·주변지역 조정계획 이전 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경관계획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계획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로녹화 및 미관개선 등은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실현의 미흡함과 부족한 도시공공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4) 서울시 가로녹화사업과 조망가로 조성사업계획 (1990년대-현재)

1990년대에 들어서 제2기 서울시정의 공약사항인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는 1998년 7월부터 4년간 연간식수 목표량을 정하여 놓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시행되었다. 그중 가로변, 한강·철도연변 녹화가 대표적인 가로 교통시설변 녹화사업이라 하겠다. 이 사업의 목표는 가로변 유희공지와 도시구조물을 녹화하여 녹음이 풍부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별로 특색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단절된 공원과 녹지를 녹도와 생태통로로 연결하고자 함이었다. 제3기 현 민선 시정에서는 종전의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에서 ‘푸른 서울 가꾸기-생활권녹지 100만평 가꾸기’로 명칭을 바꾸고 공원녹지 부족지역에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충해서 공원녹지의 지역 간 균등화를 도모하고 택지개발, 도로건설에 의해 단절된 녹지체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녹지체계관련 현 서울시의 시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2006년까지 청계천복원과 함께 창경궁~종묘를 잇는 녹지축, 청계천, 중랑천, 한강을 연결하는 수경녹지축의 연결 및 서울시 녹지축기본계획수립.’

34) 이희정,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운영평가와 개선방향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56

한편, 1999년 서울시는 조망가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통하여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자연경관들이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가로 중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성과 경관성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좋고 위계가 있는 조망가로를 선정하고 우선적인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그 시범가로에서 조망대상으로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경관제어 및 정비지침 작성, 물리적인 가로정비계획, 조망포켓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를 시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망가로조성 사업을 실행할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재정계획이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조망가로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추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

4.1 사례분석의 틀

문화시설물, 문화이벤트, 문화를 적용한 장소이미지 홍보, 문화관광지구, 역사유적지 등 문화를 통한 공공 공간을 연출한 사례를 선정한 후, 장소현황에 따른 거리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 공간·예술·역사, 사용자적 가치를 분류하여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가 체화된 문화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나아가 도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문화거리의 발전 방향에 관한 새로운 제안의 근거를 마련한다.

4.1.1 분석의 기준

1) 장소현황

(1) 용도지구³⁵⁾

거리가 포함된 지구의 용도지구를 명확히 알아봄으로써 거리의 성격을 파악한다.

(2) 일반특성

지역의 주를 이루는 업종을 파악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35) 용도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7조제1항 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 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용도지구 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아파트지구 /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거리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3) 이미지스크랩

거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각각의 문화의 거리가 지닌 장소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한다.

(4) 도로구조, 포장상태, 시설물, 경관

실제 장소의 현황을 분석한다. 재료와 구성요소 등에 관한 이미지도 함께 첨부한다.

(5) 디자인 특징

거리의 레이아웃을 비롯한 특징적 이미지를 파악하여 거리의 디자인 컨셉을 분석한다.

2) 문화적 가치

공공공간의 문화가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문화가 체화된 공공공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한다. 문화가치 요소는 1장에서 고찰한 문화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적 가치,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사용자적 가치로 분류하여 각 거리가 현재 지닌 문화가치 요소를 분석한다.

(1) 공간적 가치

공간의 위치에 따른 주목성, 공간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영역성, 공간의 의미를 통한 정체성 등 공간에서 가져야할 가치를 분석한다.

(2) 예술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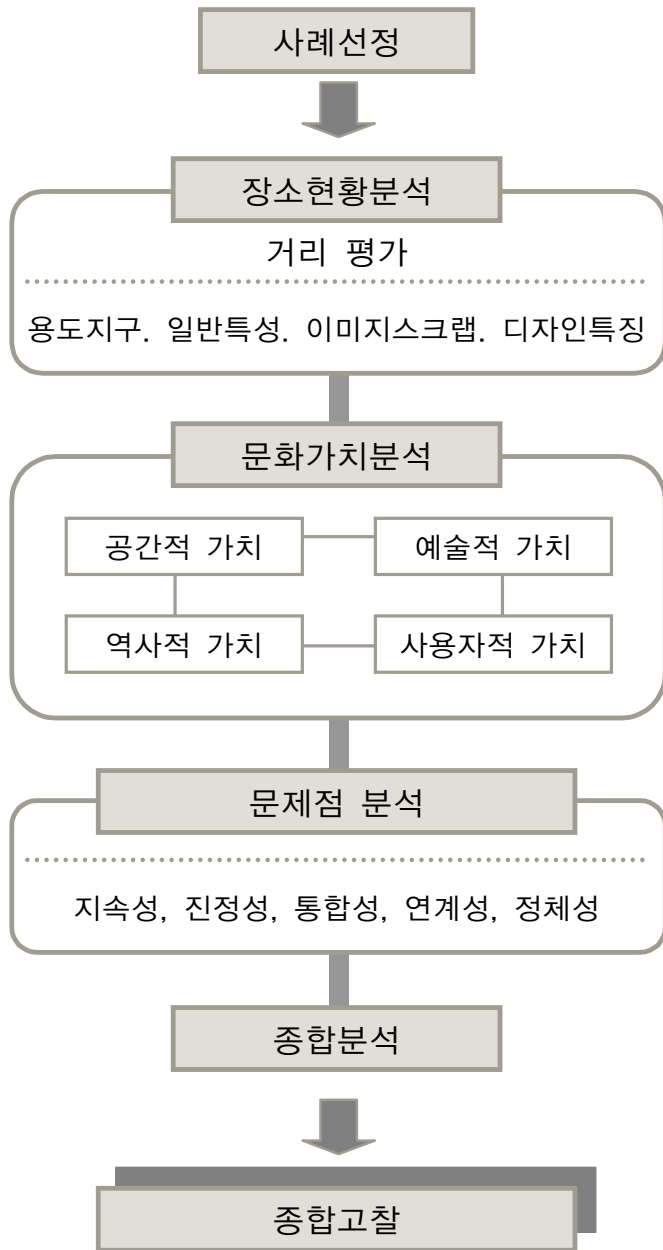
미학적인 부분을 일컫는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등의 가치를 분석한다.

(3) 역사적 가치

오랜 역사문화 유산이나 전통문화 등 시간 속에 정제된 것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가치 중 하나로써 분석의 의미가 크다.

(4) 사용자적 가치

한 공간에서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달리 얻어지는 가치로써 사용자의 공간 만족도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적 가치 중 가장 일차적이면서 그 중요도가 높은 분석 기준이다.



〈표 4-2〉 사례분석 과정표

4.1.2 사례분석 대상 및 과정

	위치	용도지구	일반특성/선정사유
인사동 문화의 거리	종로2가~안국동4거리 길이 700m, 폭 12m	역사문화 미관지구	화랑, 음식점, 고미술품점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
정동 문화의 거리 (덕수궁 돌담길)	덕수궁~새문안길 길이900m 폭 8~18m	문화지구	갤러리, 소극장,음식점
			대표적인 역사문화거리
아리랑 영화의 거리	돈암4거리~정릉길 길이1,450m, 폭 15m	일반 미관지구	영화관,도서관,일반상가
			대표적인 영화문화거리
홍대 문화의 거리	상수동~서교동 길이1,280m 폭 5~15m	문화지구	클럽, 학원, 작업실,소극장
			대표적인 복합문화거리

〈표4-1〉 사례분석 대상

4.1.3 대상지 선정사유

	대상지 선정사유
인사동 문화의 거리	전통 문화의 거리
정동 문화의 거리 (덕수궁 돌담길)	역사 문화의 거리
아리랑 영화의 거리	예술 문화의 거리
홍대 문화의 거리	복합 문화의 거리

〈표4-2〉 사례분석 사유

4.2 사례분석

다음 분석표에 따라 4곳의 문화의 거리를 분석했다.

거리명		위치	주소기입
위성 사진	http://earth.google.com/	대상 지도	http://gis.seoul.go.kr/
전경	파노라마 사진		
장소 현황	용도지구		일반특성
	이미지	전경사진/문화거리의 조형물,....	
	도로구조		부분이미지
	포장		
	시설물		
	경관		
	디자인 특징		
	문제점		
문화 가치	공간적 가치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사용자적 가치		
종합 고찰			

〈표4-3〉 사례분석표

4.2.1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종로2가에서 관훈동을 거쳐 안국동4거리까지의 폭 12m, 길이 700m의 길. 짧고 좁은 길이지만 인사동의 고미술, 골동품상, 화랑, 고서적상, 표구점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도가 높다. 이 길의 공사기록은 1919년에 견지동~인사동간 283m 구간을 8m 폭으로 공사가 시행된 바가 있으나 현재의 노폭 12m로의 확장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965년과 1970년에 인사동 복개공사가 600여m 구간에 걸쳐 시행된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하수도공사에 의해 도로가 축조된 것으로 추측된다.³⁶⁾

구분	지정번호	명칭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	3호	원각사비
사적	213호	우정충국
	257호	운현궁
	354호	탑골공원
시 지정 유형문화재	36호	천도교 중앙교당
	73호	탑골공원 팔각정
시 지정 민속자료	15호	경운동 민익두家
	19호	운니동 김승현家

〈표4-4〉지역인근 지정 문화재 현황



〈그림4-2〉인사동 지역 유적 분포현황

자료출처: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9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신구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다양함이 묻어나는 박물관과 같은 거리이다. 거리 곳곳에 한국의 역사가 배어있는 유적지들이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 골목마다 들어선 전통찻집과 음식점, 목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필방, 고미술상과 화랑 그리고 생활 속에 예술을 구현

36) 종로구청 인사동길정보 <http://tour.jongno.go.kr/index.jsp>

하는 공예업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고미술품 전시회, 무도회, 도자기 만들기 등을 벌이는 인사동 축제가 열리면 한국 전통을 상징하는 각종 볼거리들이 흥겨운 장을 조성한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엿보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메리스 앨리(mary's alley/메리의 뒷골목)로 더 잘 알려진 인사동이다. 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고미술	화랑	표구절	필방	도자공예	음식점	전통찻집	계
172	108	87	85	32	83	54	621

〈표4-5〉 문화업종 분포현황

자료출처: 종로구청 문화공보 담당실

인사동은 특히 갤러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갤러리가 밀집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화랑인 ‘현대화랑’(현재 사간동에 자리한 '갤러리 현대'를 가리킴)이 개관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74년 골동품에 대한 증과세조치와 가짜 고서화 사건 등으로 골동품 가게들이 문을 닫자 그 자리에 화랑이 들어섰다. 80년대 이후에는 현대미술을 다루는 전문 화랑이 속속 문을 열었다. 기존의 고미술품점과 현대미술 전문화랑이 인사동길을 따라 밀집하면서 소격동,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미술관 벨트를 형성하기 시작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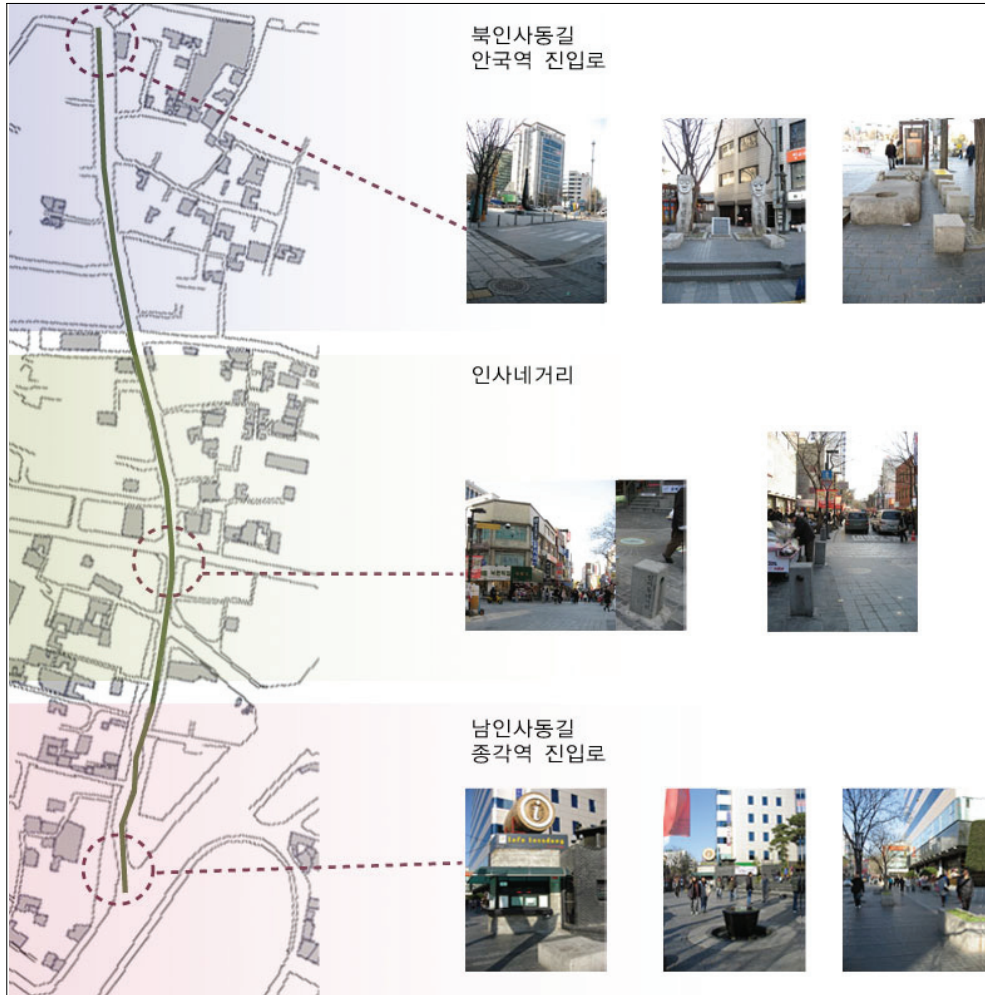
1997년 ‘차 없는 거리’ 행사 시작 이후 일반인들의 관심 집중되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어보고자 한 많은 사람들이 인사동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전통문화의 보급과 보행자 공간의 확보측면에만 있지는 않았다. 인사동 전통문화 이미지를 이용한

37) 김진선,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관광안내도 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2006, p29-30.







상업적 좌판이 거리를 가득 매우게 되었고 하루 10만명이 몰리면서 차가 없어도 보행 여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리가 되었다.³⁸⁾ 인사동은 곳곳에 위치한 문화유적 등 거리자체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인사동이 관광 명소화 되면서 임대료 상승 등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다.

38) 임학순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p44.

거리명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종로2가~안국동4거리까지 길이 700m, 폭 12m의 거리
위성 사진		대상 지도	



〈그림4-3〉 인사동거리 현황도

전경				
	용도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특성	화랑,음식점,고미술품
장소 현황	이미지			
	도로구조	가장 좁은 곳은 6미터, 넓은 곳은 15미터로 가로 폭이 불규칙하고 도로선형은 완만한 곡선 형태로 물길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포장	전돌 형 점토벽돌로 고전적인 이미지를 살렸으나 단차, 기울어짐, 포장면의 굴곡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포장상태이다.		
	시설물	돌 벤치겸 블라드, 수정시설, 베너걸이 조형물, 안내판 등이 인사동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경관	인사동 중심거리의 건물 구조는 목조 40.3%, 시멘트 벽돌조 16.7% 철근콘크리트조 27.8% 연와조 15.3% 이며 건물층수는 3층 이상이 48%로 가장 많다. 또 길변상가는 평균 15평으로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특징	인사동은 인사네거리를 중점으로 북인사동길과 남인사동길로 나뉘어 있다. 북인사동길은 전통미가 느껴지는 물길과		

		돌 벤치를 통해 소 공원화하였다. 반면 남인사동길은 북인사동길에 비해 현대적인 느낌이 강한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고 거리의 바닥은 검은색 전돌 형 점토벽돌이 깔리고 수경시설, 인사동 상징물, 8개의 열주나무기둥 등의 시설물이 전통문화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³⁹⁾
	문제점	보차공존도로로서 보도와 도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식재대나 벤치형 블라드로 구분 짓고 있으나 시설물의 디자인이 장식적인 면이 강해 특별한 경계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차도에 비해 보도의 비중이 약하다. 포장은 전통이미지에 치중되어 돌 간격의 홈이 커서 여성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형태이다.
문화 가치	공간적 가치	북측의 고궁, 남측의 고층 건물 군 및 재개발 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공간적으로 도시 상업지역내에 자리 잡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간이다.
	예술적 가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통문관’을 비롯해서 골동품과 화랑, 각종 문화행사들이 인사동만의 전통미를 보여준다.
	역사적 가치	길과 골목, 소규모의 필지들은 조선시대부터 점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하나가 전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사용자적 가치	‘차 없는 거리’ 문화공연 등 이용자들의 편의와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합 고찰		어떤 문화가 더 가치 있는가가 아니라 인사동만의 고유한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보이는 부분의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숨겨진 큰 가치를 잃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⁴⁰⁾

〈표4-6〉 인사동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4.2.2 정동 역사문화의 거리

덕수궁에서 이화여고, 신문안길 까지 길이 약870m 가로 폭 8~18m(구간마다 다름)의 길.⁴¹⁾ 정동길은 도심의 역사 지구로써 덕수궁, 정동교회,



〈그림 4-4〉 정동길 역사적 건물 현황

구러시아 공사관, 배제학당터, 이화학당이 위치하였고 정동극장을 비롯한 문화, 공원 시설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동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처음 이곳은 역사적 특징에 의해 인지도가 높은 길이었지만 사실은

좁은 보행로와 열악한 보행 시설물로 그 형태가 구성되어 있었다. 지금의 정동길이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산책로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기존의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전환된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가로 주변의 역사 및 문화 환경을 잘 반영하였다. 그러한 반영은 가로 시설물과 포장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주변의 식생구조(덕수궁)를 적용하였고 돌담의 재료와 주변 건물의 벽돌 등의 성격을 잘 살려 비슷한 재료와 색감으로 포장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을 나타내는 주요 상징물을 도판화한 타일을 보도 바닥 곳곳에 배치하여 지역의 유래 및

39) 김진선,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관광안내도 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2006, p26.

40) 김정규, “역사문화거리의 계획방법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학위논문, 2001,p 6.

41) 장미정, “서울 명동 상업 보행자 가로 특성화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학위논문, 1999, 33p

형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간선 도로변은 기존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열식 되어 있고 덕수궁에서 발견되는 수종(말채나무, 살구나무, 회화나무 등)을 사용하여 주요공간에 식재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국내에서 기존의 도로를 보차공존 가로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가로로서 그 의의가 큰 사례이다.

거리명	정동 역사문화의 거리	위치	서울시 중구 정동 덕수궁~새문안길 까지 길이900m, 폭 8~18m의 거리
위성 사진		대상 지도	



〈그림4-5〉 정동 문화의 거리 현황도

전경				
	용도지구	문화지구	일반특성	갤러리, 소극장, 음식점
장소 현황	이미지			
	도로구조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도로구조로 차량의 제한 및 감속을 유도하는 ‘S’형, ‘C’형 도로로 디자인 되어 있다.		
	포장	화강석과 적색벽돌, 황갈색벽돌 등을 이용해 덕수궁, 정동교회와 연결되는 느낌으로 조성되었다.		
	시설물	시계탑, 바닥분수, 주요 상징물을 그린 도판타일, 벤치의 기능을 겸한 블라드가 구간별 설치되어 있다.		
	경관	덕수궁을 시점으로 성벽인 돌담길과 간선도로변의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주변 가로수가 조화를 이루어 휴식을 유도하는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⁴²⁾		
	디자인 특징	본래 돌담길이 가진 고전적 이미지에서 현대적 이미지의 벤치, 깔끔하게 정리된 블라드 등을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시계탑, 바닥 분수, 주요 상징물을 그린 도판타일, 식재대를 이용해 거리의 지루함을 해결하였다.		

		포장은 주위 환경(덕수궁, 정동 교회)과 연결되는 재료를 사용. (화강석, 적색벽돌, 황갈색벽돌) ⁴³⁾
	문제점	포장은 대체로 양호하나 획일적인 패턴으로 특성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도판타일을 배치하여 지루함을 덜고 포인트를 준 점은 시민들에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화 가치	공간적 가치	서울시립미술관, 정동극장, 배재공원, 정동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정동길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예술적 가치	고궁과 돌담길의 자연미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인한 보행로의 조형미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주변의 운치 있는 가로수와 현대적인 디자인 조형물이 거리의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역사적 가치	과거 정치·외교·종교·교육의 중심지로 외국의 공사관과 궁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의 무거움과 높은 담에서 오는 거리감을 부담 없이 거닐 수 있는 거리로 조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
	사용자적 가치	극장, 미술관 및 궁궐의 문화적 요소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등으로 이용자와 소통을 추구한다.
종합 고찰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디자인 되었다. 부근에 입지한 공원과 역사문화시설을 통해 녹화거리를 조성하였다. 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고궁의 돌담과 조화를 우선으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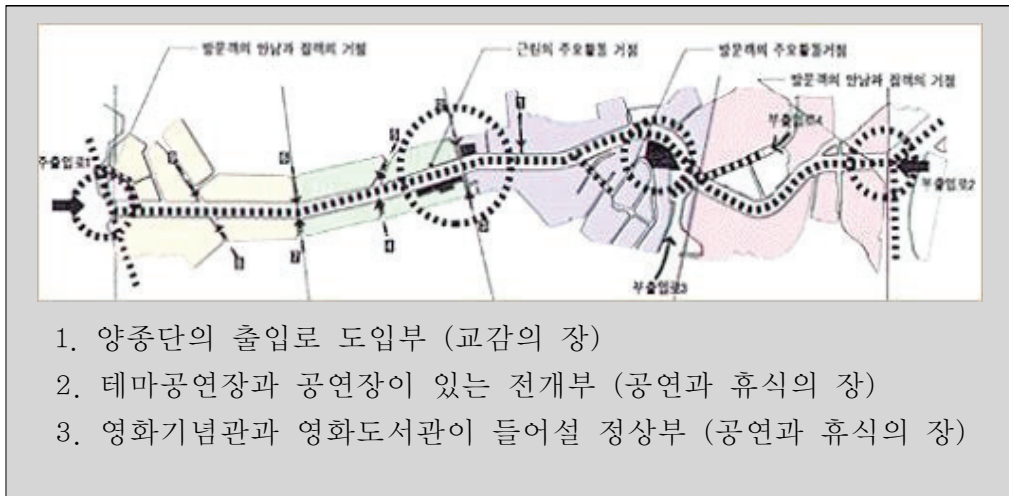
〈표4-7〉 정동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42) 장미정, “서울 명동 상업지역의 보행자 가로 특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

4.2.3 아리랑 영화의 거리

돈암사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동소문동, 동쪽으로 동선동을 지나 돈암동, 정릉길과 교차하는 아리랑시장 앞까지 폭15m, 길이 1,450m의 길. 아리랑고개는 서울시내 249개 가로명 가운데 길이 아닌 고개를 부르는 유일한 도로다. 그 유래로 1935년 일제강점기에 요리업자들이 고급 요정을 꾸며 손님들을 끌기위해 민요 "아리랑"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또 1926년에 만들어져 한국 현대영화의 효시가 된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의 '아리랑' 마지막 컷을 영사기에 담았다고 하는 곳이라 하여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길을 '아리랑 영화의 거리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성북구는 구의 도시 장기발전계획의 종합적 개발 차원의 접근을 통해 도시기aro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화하여 극대화시키는 전제하에 영화를 테마로 한 독특한 가로문화 공간을 체계화하는 계획으로 새롭게 조성하였다.⁴⁴⁾



〈그림4-6〉 아리랑 영화의 거리 종합구성도

한양대학교학위논문, 1999, p34.

43) 이신해,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 계획", 서울시, 1997,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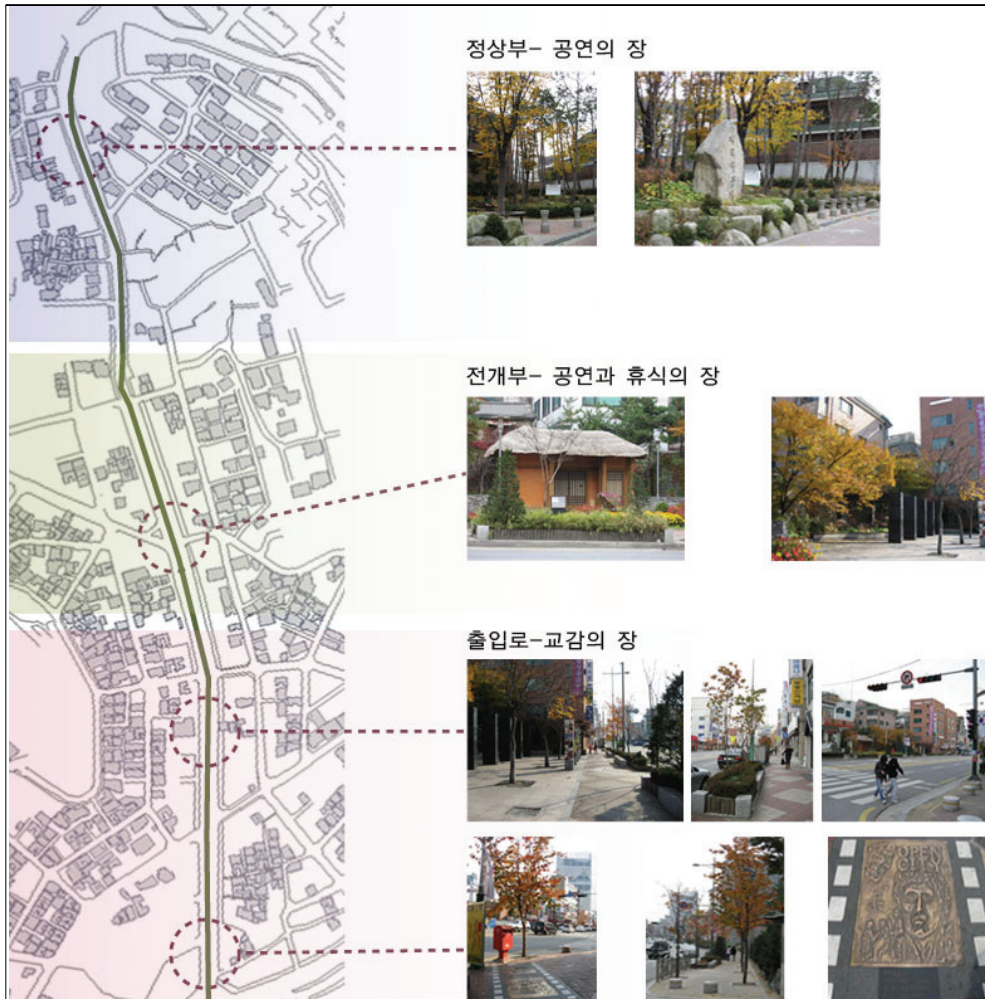
44) 성북구청 아리랑 고개 홍보 사이트 <http://arirang.seongbuk.go.kr>

사업은 기념가로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영화의 거리로 특화함으로써 전통과 역사,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교육, 문화, 휴식, 관광의 명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색 있는 볼거리로 조성된 부분은 ‘청동 영화 포스터’의 길이다, 아리랑 시네센터를 앞 언덕길 아래로 보도를 따라 펼쳐지는 대형 청동부조들의 행렬. 길을 걷는 행인들은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즐거운 영화여행이 할 수 있다. 이 청동부조들은 모두 166개의 국내외 대표적인 영화 포스터를 실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돈암동사거리까지 보도 양쪽에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영화‘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된 1926년을 기점으로 2000년까지의 작품을 담았으며 남쪽 보도에는 국내영화 포스터, 북쪽 보도에는 외국영화 포스터들이 부조로 설치되어 있다. ‘국내 영화 60년사의 최고작’(이대근 주연 ‘장마’) 등 포스터가 만들어진 당시의 홍보문구와 주연배우의 특색을 생생하게 잡아낸 그림 등이 재미를 더 한다.




상가로 이어진 거리 중간 중간에는 ‘아리랑 쉼터’라는 이름의 시민휴식 공간도 만들어졌다. 나운규의 일생과 영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최근 영화의 스틸사진 장식으로 덮인 보도가 깔려 있어 주민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 조성한 거리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리랑 시네센터’와 ‘아리랑 정보도서관’이외에 주변에 상권이 가진 특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북구 주민들에 국한된 영화의 거리가 아니다. 문화의 거리는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인들이 자주 찾아 거리의 경제적 가치를 높임으로서 주변상권과 나아가 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무로에 한정된 영화 상권을

더 확장하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은 좋은 의미로 추진되어 조성되었지만, 아직 곳곳에 시설물들의 문제점과 상권의 열악함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문화낙후지역인 이 일대에 오아시스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거리명	아리랑 영화의 거리	위치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돈암4거리~정릉길까지 길이 1,450m, 폭 15m 거리
위성 사진		대상 지도	



〈그림4-7〉 아리랑 영화의 거리 현황도

전경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	일반특성	영화관, 도서관, 일반상가
	이미지			
장소 현황	도로구조	4차선 도로와 보행로로 이루어져있으며 일반적인 일자형 도로구조이다.		
	포장	특화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한 일반적인 벽돌형 보도블럭으로 마감되어 있다.		
	시설물	벤치 겸 블라드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1920년대 이후 제작된 국내·외 166개 영화의 동판 포스터를 볼 수 있다.		
	경관	가로수와 식재대의 활용으로 거리에 녹지환경을 조성하였다. 새롭게 조성된 거리로 조경시설물과 포장 상태는 양호하나 주변상가의 간판과 현수막, 무분별한 광고물로 전체적인 이미지는 산만하다.		
	디자인 특징	거리의 양쪽 바닥에 국내외 영화의 포스터를 청동부조판으로 설치하였다. 거리의 중간중간에는 쉼터를 만들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수목을 정리하여 거리의 운치를 더했다.		

	문제점	우.비시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청동 부조판의 디자인으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성있는 거리연출을 위한 디자인일지라도 가로와 일차적 기능인 보행의 편리를 우선시해야 된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거리의 이미지가 영화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상권과의 문화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잘 정리된 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문화 가치	공간적 가치	돈암동, 길음, 정릉의 중간 지점으로 성신여대, 성균관대, 고대 등 주변대학과의 접근성이 좋다.
	예술적 가치	거리를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영화의 예술성을 부담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적 가치	아리랑 고개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영화문화를 표현하였다. 아리랑 영화가 상영되었던 과거사에 관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용자적 가치	다양한 영화관련 행사와 청동 부조판 포스터 등을 통해 누구나 길을 지나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 느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종합 고찰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랜드마크로 역할 수행, 상권의 열악함을 보완하여 문화가치를 상승시켜야하는 공간이다. 거리의 환경 개선으로는 기존의 협소하고 어지러웠던 경관을 보완하였지만,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표4-8〉 아리랑 영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4.2.4 홍대 복합문화의 거리

홍대지역 일대는 1960년대 이후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써 1955년 홍익대학이 현 위치로 이전한 이후 1980년대 홍익대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화방, 공방, 미술학원, 미술서점, 작업실, 갤러리 등의 예술관련 공간들과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사이의 4차선 도로변을 중심으로 분포한 소규모의 음식점과 먹자골목 등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대중들 앞에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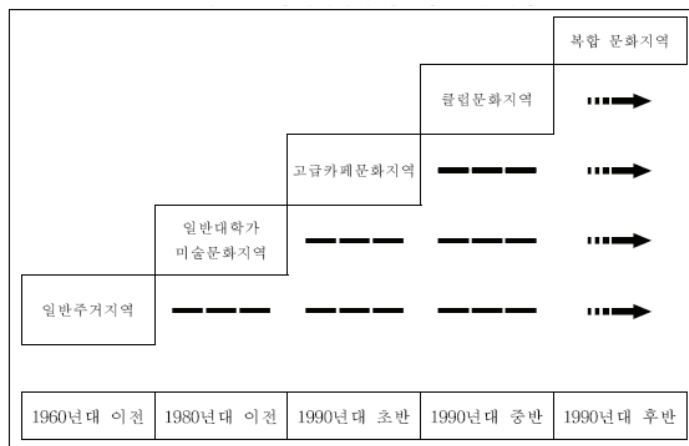
홍대지역이 사회적으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포스트모던 양식의 고급 카페들이 등장하면서부터다. 홍대 정문에서 극동방송국, 주차장 거리에 이르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이른바 ‘피카소 거리’ 혹은 ‘카페골목’이 형성되던 시기다. 미술학도들과 작가들, 문화예술인들이 드나들던 거리에 고풍스런 고급카페와 테마카페, 복합 갤러리 등이 등장 하면서 홍대지역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우면서 자유로운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홍대지역은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가 장소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즉 이때부터 ‘라이브클럽(LiveClub)’ 과 ‘댄스클럽(DanceClub)’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홍대지역에 ‘라이브클럽’이 생기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대학가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신촌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던 중 1994년 ‘드럭(Drug)’이라는 라이브클럽이 홍대지역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⁴⁵⁾ 인디(Indie),⁴⁶⁾ 얼터너티

45)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는 대중문화에 속하지 않고 순수한 목적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문화를 하는 부류를 말한다. 음악의 경우 언더밴드라 하면 클럽에서 메탈이나 록, 힙합을 연주하는 그룹을 통칭한다.

46) 인디(Indie)문화는 일반적으로 주류문화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문화를 통칭하며 특히 음악과 영화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있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말한다.

브(Alternative),⁴⁷⁾ 비주류(Fringe)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던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반문화(CounterCulture)들이 대학캠퍼스에서 지하 클럽으로 무대를 이전하게 되었다. 홍대미대의 존재로 인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작가들의 ‘작업실’이 클럽형성의 모태가 되었다. 즉 홍대지역의 댄스클럽은 작업실에서 ‘바(Bar)’형태로 다시 ‘클럽(Club)’으로 발전해왔다.⁴⁸⁾



〈그림 4-8〉 홍대지역의 장소성 변천과정

자료출처: 이무용,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2003

따라서 홍대지역의 클럽문화는 홍대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시 그 장소성을 강화시키는 지극히 홍대지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럽문화의 형성과 더불어 1990년대 말부터 홍대지역에는 문화산업관련 전문 직종들의 사무실이 하나둘씩 집중되고 있다. 이전부터 존재하던 미술관련 작업실과 갤러리, 소극장들과 더불어 디자

47) 주류 음악시장 규칙과 관습적 사운드를 거부하는 이런 록은 '대안'이란 뜻인 <얼터너티브>로 불렸다. '장르'가 아니라 '음악하는 태도'를 일컫는 용어를 말한다.

48) 고경모, “문화도시의 장소마케팅 관점으로 본 홍대지역 클럽문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학위논문, 2005, p70.

인, 광고, 영화, 방송, 사진, 출판, 만화, 패션, 인터넷 콘텐츠 관련 업종들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홍대지역은 미술과 음악분야 뿐만이 아닌 복합 문화지역으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다.⁴⁹⁾

홍대 지역의 거리들은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파사드를 갖춘 고급테마카페와 언더그라운드 클럽, 록빠 등의 서구적 소비문화공간이 포진해 있는 ‘피카소 거리’, 홍대지역 문화예술의 원초적 기지 역할을 하는 미술학원들이 집결되어있는 거리, 예전의 철로의 기억이 잔재되어 있는 공용주차장 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자골목, 점점 단독주택이 줄어들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원룸형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주택가 골목, LG팰리스 건물을 필두로 고층건물들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홍대전철역 주변 상가 거리 등이 홍대지역의 주요거리들이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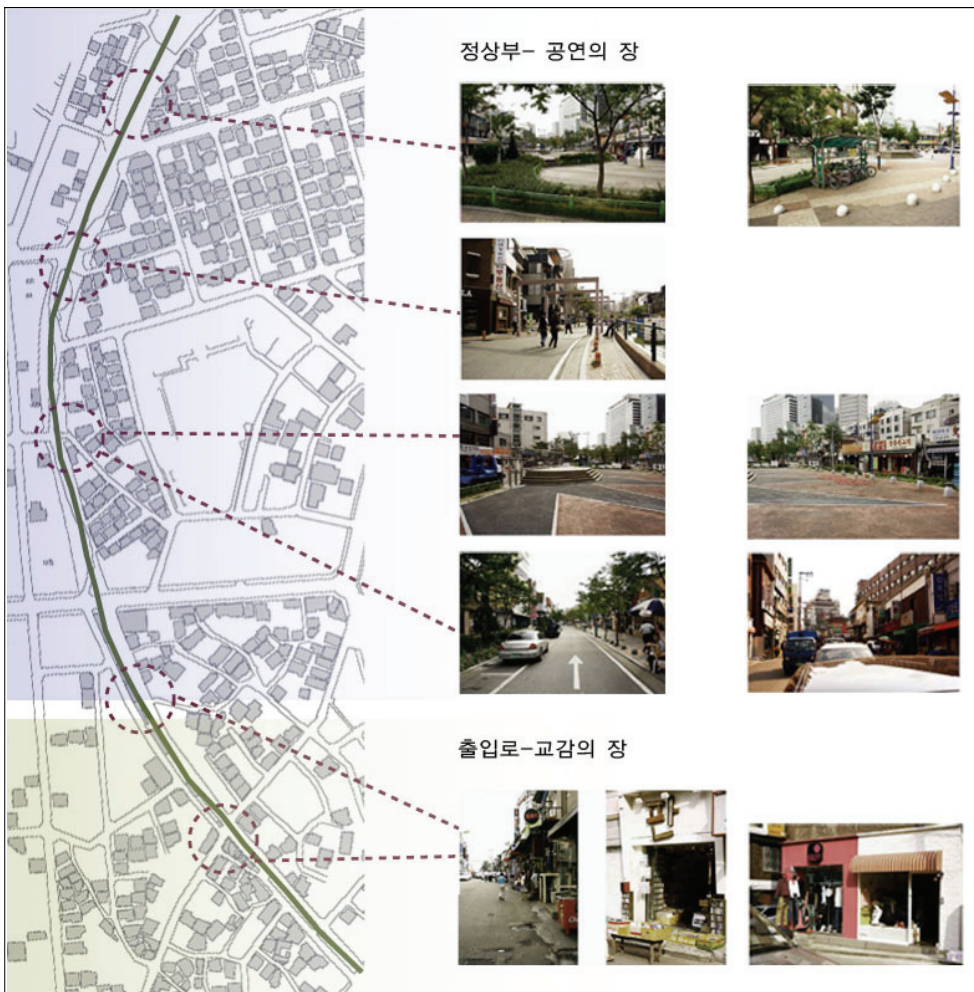


〈그림4-9〉 홍대지역 용도별 분포도

49) 고경모, “문화도시의 장소마케팅 관점으로 본 홍대지역 클럽문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학위논문, 2005, p80.

50) 이재오, “홍대 앞의 거리문화”, 홍대대학원 신문 제12호, 2000.

거리명	홍대 복합문화의 거리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상수동~서교동 까지 길이 1,280m, 폭 5~15m
위성 사진		대상 지도	



〈그림4-10〉 홍대 문화의 거리 현황도

전경					
장소 현황	용도지구	문화지구	일반특성	클럽, 학원, 작업실, 소극장	
	이미지				
	도로구조	<p>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 폭이 일정하고 완만한 구조이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자동차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p>			
	포장	<p>보도와 차도는 아스팔트와 벽돌로 구분되어 있다. 공원길로 조성된 거리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변화있는 패턴으로 디자인되었다.</p>			
	시설물	<p>중앙의 무대와 아케이드형의 구조물, 벤치와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다.</p>			
	경관	<p>대부분의 건물은 5층 이하이며 주거시설은 1~3층 이하를, 상업시설은 3~5층 정도이다. 거리의 곳곳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있고 중앙에 공연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p>			
	디자인 특징	<p>복합공간으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거리 중앙을 무대화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거리미술전을 통해 건물의 벽이 한 장의 그림이 되고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하였다.</p>			

	문제점	<p>복합공간으로써 홍대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시설적인 면에서 너무 일반화된 문화거리이다.</p> <p>도시민의 쉼터의 역할보다는 대학생들의 상업적인 출구로써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도시 패턴 상 주변 블록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보다 반대되는 축을 형성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동선을 형성, 흐름을 끊고 있다.</p>
문화 가치	공간적 가치	<p>과거에는 당인리 발전소로 이르는 철길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쇠퇴하면서 홍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였다.</p> <p>현재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된 곳이다. 서쪽으로는 홍대를 향하는 4차선 도로와 면해있고 남쪽으로는 피카소 거리와 면해있다. 홍대입구 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동인구가 Site주변의 카페거리나 클럽거리 등을 이용하기 위한 통과와 동선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지역으로의 진입부에 해당된다.⁵¹⁾</p>
	예술적 가치	<p>대안 문화가 생산되는 문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음악, 미술의 자유로운 표현이 중첩된 개성있는 공간이다.</p>
	역사적 가치	<p>음악, 미술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도의 공간으로 언제나 각광받았다.</p>
	사용자적 가치	<p>사운드스트리트파티를 비롯해, 홍대 신춘문화포럼의 놀이터 문화행사와 홍대 앞 예술시장, 클럽데이 추진위원회의 전시회 등의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p>
종합 고찰	<p>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한 동시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부의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한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언더문화 계열의 미술, 음악, 영상, 디자인, 광고, 만화, 인터넷 콘텐츠 등 첨단 멀티미디어 문화전문업종과 관련 인적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⁵²⁾</p>	

〈표4-9〉 홍대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표

5. 재해석 및 제안

문화는 도시와 더불어 성숙해진다. 따라서 도시로서 기본이 서 있지 않은 도시에서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또한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생산,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화, 문화향유의 평등성과 같은 여러 측면들이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거리의 정체성 구축과 활성화는 문화도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문화 시설	녹색 지역	문화 유적	도시 경관	중심 거리	보도	아이덴티티	관련법
시간성	◎		◎	○	◎		○	◎
일상성	◎	◎		○	◎	◎	○	
현실성	◎	◎		○	◎		○	◎
신뢰성(연속. 지속)	◎	◎	◎	○	◎		○	◎
보살핌	◎	◎	◎	○		◎	○	◎
효용성	◎	○		○			○	
아름다움	◎	◎		○	○	◎	○	

〈표5-1〉 바람직한 공간의 생산과 실천을 위한 매트릭스

문화공간의 생산을 위해서는 그 생산방향과 원칙들이 먼저 잘 파악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문화거리는 아직 명확한 법적 제도를 가지 계획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제도와 법으로 문화적 기획의 역할까지를 맡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문화적 접근방향에 입각하여 기획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주도의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51) 김광순, “Weaving을 통한 복합문화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학위논문, 2006, p19.

52) 최정환, “아름다운 마을과 문화를 가꾸는 주민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자료, 공간문화센터, 2002, p4.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문화거리의 생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공간, 역사, 예술, 사용자라는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로써 서울 문화의 거리를 가꾸고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방식들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 방식들의 긴밀한 연결이 더욱 발전된 문화거리 조성을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공간적 관점	비워진 공간	개방된 공간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가로조성	공공공간으로 개방된 가로조성
예술적 관점	생산적인 공간	일상적인 공간
	문화가 생산되는 활동적인 가로조성	일상적인 공간으로 편안한 가로조성
역사적 관점	장기 지속가능한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가로조성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가로조성
사용자적 관점	보행자를 위한 공간	참여하는 공간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능동적인 가로조성

〈표5-2〉 분석 결과에 따른 네가지 관점 요약

5.1 공간적 관점

5.1.1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가로조성

1) 도시공간을 채우기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키워내는 것이 비움의 방식이다.

도시공간의 변모관정에서 건조물이 소멸 또는 철거되어 비워지게 되거나 이미 비워져 있는 공간들은 서울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는 그 중요성이 높다. 다양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빈 공간들을 선불리 사적인 이윤에 따라 즉각적으로 개발해 버리고 물리적으로 채워버림으로써 잠재적인 가능성을 매워버려서는 안 된다. 도시공간에 대한 왜곡과 훼손을 원상태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풍부한 문화의 논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 가능성의 공간을 신중히 비우겠다는 태도가 훨씬 가치 있으며, 이것이 비움의 방식이다.

2) 채움의 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다.

용산미군기지는 서울도심에서 매우 드물게 저밀도 공간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생태적인 가치도 높은 장소로서 장래의 도시발전과 연관하여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되찾았을 경우 여태까지의 대응태도가 바뀌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 그 공간을 선불리 시설들로 마구 채우고 가능성의 여지를 없애 버린다면, 설령 그것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문화적 시설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반문화적인 도시공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채움의 방식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고 올바른 비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화공간형성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서울은 무분별한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 반문화적인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에 도시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온 이후, 근대의 서울의 공간환경은 방임적 자본주의에 의해 경쟁적으로 점유되고 채워진 과정을 거치면서, 거시적 도시맥락에서 미시적 범위에 이르기까지 공공영역의 공간적 범위와 질이 크게 신장되지 못했다. 청계천 복개, 삼일고가도로의 건설같은 도시인프라 사업 도시생태와 경관환경을 망치는 개발 사업, 역사문화재 인근의 건조물축조, 무질서하고 난잡한 건축외과, 도시외부공간을 망치는 각종 장애물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선 반문화적이고 낡은 환경을 제거하기 이전에 이러한 환경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다.

3) 제안: 비움의 방식이 필요하다.

비움은 시민이 요망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공적 공간은 무엇보다 이 점을 유의해서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복잡한 거리에 벤치를 여러 개 배치한다고 휴식의 공간이 제공되고 문화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거리구조의 개선과 건물외관디자인, 간판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략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에서도 비움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생태공간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도시구조를 바로잡아 도시의 역사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경관과 정체성을 가꾸는 데에는 비움이 채움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려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게 보여 지지 못하는 경우가 채움의 방식이다. 이러한 비움을 위한 디자인은 거리 구성 요소를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디자인하

여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어야한다.

비움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이 거리를 변모시킨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거리의 이미지를 디자인 한다면 비움의 방식을 통해 정체성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1.2 공공공간으로 개방된 가로조성

1) 문화거리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쉽고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문화도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어떠한 장소나 서비스, 정보에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또한 각기 다른 집단마다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를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1994년 5월 29일 세계도시계획현장 매거리트현장 중)⁵³⁾.” 문화도시공간의 이러한 개방성은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공간과 거리간의 자연스럽게 밀접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개방된 문화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의 개방성은 시민들을 배려하는 자세로 모색해야한다.

2) 서울의 문화적 폐쇄성은 공간적 폐쇄성으로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시민 다수는 여러 문화시설에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는데 불편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관공서, 공공문화시설은 접근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일

53) 라도삼, “문화공간 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45.

반시민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의 시설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문화 시설들은 도시의 조직과 긴밀히 연계를 맺지 못하고 수고스럽게 찾아가야 하는 입지상의 문제도 안고 있다.

또한 특정한 공간들(상류의 주택가나 상업 공간 등)은 그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도 일반인들의 접근에 배타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공원이거나 녹지주변은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쉽게 찾기가 어렵다. 주변건물이 그러한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의 계층성을 심화시키며 공공 공간이 민주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공간 폐쇄적 상황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제안: 거리와 각종 문화공간간에 연계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공공문화시설들의 개방성을 대폭 진작해야한다.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와 접근성을 고려하고,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시민의 접근을 유도하고 진작해야한다.

모든 문화거리의 근접지역에 문화시설과 공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문화공간으로 접근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통한 이미지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또는 사인이나 광고가 가능한 시설물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설물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문화요소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을 비롯해 각종 공공청사, 공공 건물 등의 입지와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도 고도의 접근

성을 추구해야한다.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적 잠재성을 키우고 상이한 문화강의 대화를 살리기 위해서도 개방적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 간의 계층성을 줄이고 문화 간의 교류증진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모든 공간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우고 구현되어야한다.

5.2 예술적 관점

5.2.1 문화가 생산되는 활동적인 가로조성

1) 문화예술 생산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문화거리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다.

문화의 거리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문화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기 위한 공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기성 문화를 비롯하여 각종 소수문화와 일상문화가 공간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과 향유의 양상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격리된 문화공간들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진정한 문화공간에는 문화생산주체와의 결속을 가지고 생산의 기능을 가져야만 지속적인 문화 창조와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문화예술을 생산해야 할 공간들이 소비기능에 잠식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문화적 불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대학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공연문화를 조기, 교육, 연습하는 생산기능과 그 부차기능들로서의 생활공간은 대학로 일대에 활성화되어 있지도, 집적되어 있지도 않다. 대학로의 문예회관과 마로니에공원의 활동들은 서로 시너지적 효과를 낳지 못하고 겹돌 뿐이다. 인사동 일대를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하지만, 그 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룬 근처의 문화활동들은 상업소비문화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인사동 도시설계와 같은 앞으로의 기획에서도 인사동 일대의 문화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결국 인사동은 전통의 외양과 이름뿐인 소비지구가 될 것이다.

3) 제안: 문화생산을 위한 공간기획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공간기획에 있어서 재화로 환원되지 않는 측면의 문화적 가치들은 소멸 시키는 상황을 경계해야하며, 문화생산을 진작하는 고려가 포함되어야한다.

지역의 경제구조나 일상생활과 무관한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각종기획이나 비주체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기획은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에서는 공연, 전시, 강의 등의 소비적 측면을 넘어서 교육과 주민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2 일상적인 공간으로써 편안한 가로조성

1) 일상에서 형성되고 누릴 수 있는 문화는 문화도시의 토대이다.

도시민의 삶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이 일상의 생활문화가 문화도시의 토대가 된다. 일상과 유리된 고급문화위주의 문화정책은 경계해야한다. 일상의 문화공간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은 문화도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와 정책의 목적, 정책실현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도시민의 일상적 삶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2) 고급문화로 표현되고 정착된 문화거리는 한계가 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표에서 명백한 사실은 일상에서의 문화적 향수에 대한 시민의 요청이 절실하며 이 일상적 삶의 문화적 질을 높여야한다는 사실이다. 문화도시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전문예술이나 고급문화의 육성에 두는 데는 대다수 시민들의 문화적 불평등을 영속시킬

뿐이다. 압구정과 청담동 문화의 거리 등은 서울이 고급 문화산업 육성 위주의 정책만을 펼친 대표적인 거리이다. 일상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들을 위한 물질적인 고급화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거부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비문화로 전략해 문화적 특성보다는 상업화로 치달는 거리로 변모되는 것도 문제이다.

3) 제안: 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디자인의 일반화를 추구해야한다.

삶을 실속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민의 삶과 맞닿은 도시의 아름다움과 이익을 추구해야만 도시의 아름다움은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며 향유하는 것이 된다.

시민이 실제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시설과 공공공간을 가꾸는 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적 불평등과 소외감을 해소해야 한다. 보편적 문화활동과 지역특성의 전문적인 문화활동들을 풍부히 육성하여야 한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문화참여를 위한 공간적 기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전체의 경관적 정체성은 결국 각기 남다른 일상적 경관들에서 비롯된다. 일상적 경관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공유되는 고유한 장소적 정서, 장소적 정체성을 가꾸어야 한다. 장소의 매력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근린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며 지역의 역사적, 생태적 장소성을 발굴해야 한다. 또 생태환경적 특성이나 역사적 바탕을 둔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행정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소수를 위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형성의 실마리로 간주하고 이를 키워내야 한다. 소수의 삶의 문화를 억압하는 태도는 다양한 문화를 담은 포용력 있는 문화도시로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소비 공간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그 틈새를 열어 질 높은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대형건물의 오픈스페이스 확장을 적극 권고한다거나, 대형 소비 공간에서의 각종 문화적 공연프로그램 조성 등 공공 스페이스활용도를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이러한 공간 조성은 거리디자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일상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3 역사적 관점

5.3.1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가로조성

1) 장기지속적인 문화적 가치 추구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거리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도시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 삶의 공간으로 그 안에 포함된 거리는 도시의 문화를 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형성된 삶의 방식과 관계가 질서화된 것들이 거리에 묻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도시의 문화거리는 그 시간적 내력을 끊임없이 담아냄으로써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유수의 문화도시들의 문화적 자산이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새롭고 훌륭한 문화거리의 기획의 본보기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일구어져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⁵⁴⁾

2) 단기완료적인 짧은 안목에 의해 거리의 문화적 가능성이 침해되어 왔다.

서울에서는 종종 단기적인 안목으로 성급히 완료하려는 그릇된 태도로 도시공간에 대한 기획과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그로인해 장기 지속적이고 공공적인 가치정립도 충분한 공공적 합의도 없는 기획과 사업들이 허다했다. 1980년대부터 조성되어 온 서울시 문화의 거리가 대부분 그러한 사업에 속한다. 이런 근시안적 방식의 결과로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소모적인 가치와 짧은 생명을 가진 반문화

54) 정희윤 외, “시가지 재정비와 신도시 개발의 특성 비교에 관하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p42

적, 반생태적 도시공간이 남아 서울의 문화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화의 거리 중에도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도시공간의 발전의 결과들은 현대의 서울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문화적 환경으로 남아 있으며 인사동, 정동, 명동을 비롯하여 서울의 대표적 문화지역들이 이러한 지속적 발전에 의해 그 문화적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다.

3) 제안: 장기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해야한다.

도시의 기본적인 틀. 다시 말해서 도시구조나 생태계 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상과 목표를 충분히 연구, 모색하고 그 지속적인 가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한다.

공공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정책의 시행은 빠를수록 좋지만, 이 공감과 가치 공유를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소통에 의한 충분한 합의과정 및 공공의 참여과정이 추구되어야한다.

600년여 간 지속되어 형성되어 온 서울의 도심에 30년에 걸쳐 조성된 강남의 조성방법과 동일한 시각과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역사적 맥락을 존중해야 하며, 문화지구의 조성에 대해서도 역시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을 거쳐 장기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2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가로조성

1) 역사적 가치는 보존에만 치중하면, 잊혀진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현재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기에 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 유적·유물도 과거의 시간을 담은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고 누구도 다가 갈 수 없는 것으로 보존된다면, 우리에게겐 그저 과거의 유적이고 유물일 뿐이다.

2) 보존의 의미도 상실한 허울뿐인 지역의 가치 추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은 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자랑하는 도시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도, 관광자원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로의 경우 이것들의 활용은 그저 바라보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지키고 더욱 발전 시켜야 될 역사적인 것들을 울타리를 쳐 두고 그 장소 근처의 길이라 하여 그곳과 대단한 연관성을 맺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연계성을 가지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과의 의미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3) 제안: 보존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현대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제도의 취지와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도시의 가로와 동떨어진 보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심에서 경쟁적인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업성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도심에는 역사성을 가진 건축물들이 있다. 이러한 건물들이 문화거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피에 치중되어 건물만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가로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건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5.4 사용자적 관점

5.4.1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1) 보행자 중심의 태도는 넓고 다양한 공공을 위한 것이며,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보행자 중심의 방식은 걸을 수밖에 없는 또 걷고 싶은 시민 전체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낳는다. 획일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반생태적인, 도시공간환경은 자동차 중심의 태도에 크게 기인한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는 다양하고 밀집된 문화적 환경을 촉발한다. 건물, 장소, 나무 등 세심하게 다듬어지고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2) 거리는 자동차 중심공간으로 전락되어 있다.

서울의 도시공간은 지나친 자동차 중심의 태도로 만들어져 온 경과, 보행권의 침해가 심각한 문제이다. 도시구조와 근린의 영역 전체에 걸쳐 보행의 끊임과 불편, 도시외부공간의 비인간적 활용도와 쓰임새, 건물과 길의 지나치게 큰 규모, 단조로운 도시경관, 자동차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환경악화, 교통안전의 위협 등의 폐해가 서울을 걷고 싶지 않은 거리로 만들었다, 이러한 악화된 거리의 상황은 불가피한 교통의 해결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보행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창조력 결여에서 나온 안일한 결과이다.

3) 제안: 보행자 중심의 사고로 거리가 바뀌어야한다.

섬세하고 다양한 거리경관을 위해서는 보행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

적이다. 자동차에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의 범위를 확충해야한다. 또한 보행의 쾌적성을 방해하는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아가고, 가판대, 정류소, 신호제어기, 지하철 환기구 등 길 위에 들어선 각종 시설물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한다.

도시전반에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의 네트워크를 훨씬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성해야 한다. 자동차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각종 공간들을 줄여나가면서 그 공간들을 보행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도시 외부공간 곳곳에 설 수 있는 장소를 기획하는 등 보행자의 관점에서 거리가 더 섬세하게 바뀌어야 한다. 거리 폭을 확장하고 포장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보행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거리의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가급적 문화지구 내의 거리에서 만이라도 완벽한 보행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 운행을 어떻게 최소화 할 지를 고민해 봐야한다. 또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배려될 수 있도록 육교나 지하도 같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줄여가야 한다.

5.4.2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능동적인 가로조성

1) 가로에서 일어나는 능동적인 활동은 가로의 자생력을 키운다.

사물이든 공간이든 사용자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들이 된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듯이 거리 역시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자생력을 길러야한다.

2) 통로의 기능에 한정되어 문화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로의 기능은 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보행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거부터 가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었고, 정치, 경제, 종교의 교역지였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휴식이 공간이었다. 이러한 거리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거리의 단일 기능만을 생각한 결과 보기 좋게 꾸며 놓는 거리가 보행 시 좋은 거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또 각 지역의 거리가 지닌 정체성을 지닌 활동은 배제 되었다.

3) 제안: ‘참여하는 거리’,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거리의 경우, 마구잡이식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공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보다는 활발한 문화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훨씬 중요하다.

‘고칠 것’ 과 ‘만들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이 분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문화거리는 주체성을 잃고 다양성만을 가진 하나의 거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의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참여가 가장 보편화된 방법 중 하나는 거리 축제이다. 평범한 통로가 축제의 장소로 바뀌면 관람을 위해 거리에 정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거리를 통로로써만 찾지 않고 소극적인 관람이나,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 등으로 사용자는 거리와 소통하게 되고 그 안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기능을 가진 거리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찾지 않고 즐기지 않는 공간이라면 죽은 공간이 된다. 모든 문화적 가치 역시 사용자들이 찾지 않는다면 결국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점은 거리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참여의 계기라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먼저 문화환경과 문화거리에 대한 개념적 연구와 함께 서울 문화거리에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서울시의 문화거리 중 대표적인 4곳을 선정하여 거리가 가진 문화적 가치와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문화거리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네가지 관점을 제안하였다.

문화거리란 기본적으로 문화적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며, 문화도시로서의 기반과 이미지를 갖춘 거리는 외부로부터 문화 인력의 유입을 촉발함으로써 도시발전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선진국이 앞 다투어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서 이다, 따라서 문화거리는 우선 도시민들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적 매력과 정체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도심을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써 그 역사적 원형을 상실한 부분이 크다. 그 결과 지금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의 잠재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어 이것에 질서를 부여하기만 하면 서울만의 독특한 개성이자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간적 전략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거리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서울 문화거리의 사례분석에 따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관점에서 서울 문화의 거리는 과포화상태이다. 건축물과 관련 시설물들이 무의미하게 계속 채워지고 있어 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보기 좋은 거리로 획일화되고 있다. 통일된 디자인은 추구하지만 지역의 개성을 반영하지 않은 거리는 문화거리의 개념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비율의 디자인의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거리의 예술적 관점에서 문화는 고급보다는 일상으로 표현되어야하며 거리문화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됨으로써 그 가치가 높아 질 수 있다. 거리는 우리가 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공간이다. 이 같은 공간을 고급으로 무장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거리가 지닌 예술성은 또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역사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장식적 디자인을 벗어나 거리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거리디자인을 계획해야한다.

넷째, 사용자적 관점에서 문화공간으로써 사용자들의 능동적인 문화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용자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는 보이나, 특정 공간과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서는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였다. 자동차 위주의 거리가 보행자 우선으로 변화한 점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참여하고 교감하는 장으로써 문화거리의 기능은 활성화 되지 못해 이를 보완할 전략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분명 문화의 거리가 가진 가치는 충분하다. 모든 문화의 거리가 사용자가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 거리가 지닌 가치를 좀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받침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높은 문화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서울 문화의 거리에 초점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현황을 조사하여 문화거리의 변화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 현재 문화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거리조성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간의 사례분석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본 연구는 관찰과 측정에 의한 정량적인 연구가 아님으로 추론에 국한된 부분이 있다. 향후 사회학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학제간의 연계를 통해 좀 더 객관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마치며 일상의 공간인 문화거리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도심 문화환경의 기초인 문화거리가 단순히 문화환경의 중요성과 영역성의 확대로 일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그쳐 사회의 유행을 따른 획일화된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 고 문 헌

[학위논문]

- 이광제, 『인사동지역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론, 2000
- 김희진, 『서울시 화랑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2
- 김주영,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론, 2003
- 전의환, 『지방의제 21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환경의식 조사연구』, 동신대학교석론, 2000
- 김진선,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관광안내도 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론, 2006
- 김정규, 『역사문화거리의 계획방법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석론, 2001
- 장미정, 『서울 명동 상업 보행자 가로 특성화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석론, 1999
- 고경모, 『문화도시의 장소마케팅관점으로 본 홍대지역클럽문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2005

[단행본]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3
- 박삼철 옮김,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고재, 2000
- 공간환경위원회,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지락, 2002
- 주정민, 『문화도시의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 홍성태,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궁리출판, 2004
- 원제무 외,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천과정』, 백산서당, 2000

[연구결과보고서]

- 서울시, 『북촌가꾸기 기본 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서울시,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서울시, 『서울시 문화환경 조성방안연구』, 1998
- 서울시, 『서울 역사 문화 산책』, 1997
- 서울시, 『서울 도시 문화 발전방안』, 1995
- 서울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1994
- 서울시, 『2001년 서울도시 기본계획』, 1997
- 라도삼 외,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공간 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외,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외,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에 관한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외, 『문화공간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외,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외,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김수현 외,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황동렬, 『문화와 사회발전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 정갑영 외,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문화지구 조성모델 기반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9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도시문화환경 조성방안(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1996
- 김규원 외, 『도시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임학순,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기타자료]

- 손봉호, 『문화도시의 개념과 이상』,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시, 2005
- 황기원, 『문화환경 가꾸기의 새로운 지향』, 21세기 선진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환경 가꾸기 전문가 워크숍
- 조명래, 『도시시민사회의 이해』, 공간과 사회 통권 제 16호, 2001
- 목정훈, 『도심 가로교통시설변 녹화 및 미관(경관) 개선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제 4권 제 1호, 2003

[웹사이트]

- <http://www.seoul.go.kr> 서울시
- <http://culture.seoul.go.kr/> 문화관광부
- <http://www.mct.go.kr/> 문화관광
- <http://jongno.seoul.go.kr/> 종로구
- <http://www.junggu.seoul.kr/junggu/> 중구
- <http://www.seongbuk.go.kr/> 성북구
- <http://www.mapo.seoul.kr/> 마포구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http://www.kcti.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http://www.cha.go.kr/> 문화재청
- <http://www.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http://gis.seoul.go.kr/> 서울지도서비스

Abstract

A Study on the Reinterpret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oul Cultural Street

Directed by prof. Hoog-Go Lee
Studied by Eun-Na Yang
Major in industrial design in
Graduated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research is about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 of the street in Seoul. As demanding of importance to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the ultimate proposal of research is based on realizing of the value about cultural street in the city, which has been changed in this technology perio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mention about the definition, general idea of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overall present condition of cultural street in Seoul. These days, the people demand the quality of their life rather than material prosperity. Likewise, as following of this social change, there is also cultural movement is changed to the importance of cultural life. The street in the city has the new function which is one of the communication for response of cultural value and delivery it to public. Therefore, in this thesis research, I was trying to clear up the idea of the research subject and analyzing of the present cultural street condition in the city. In addition, for finding the way to development of the cultural street in the

city, I was trying to analyze the cultural environment within the aspects of historical, political, and tectonic space change.

As a result from this research, the cultural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spontaneously with other cultural, social facts. Also, the cultural streets have been changed within that influence. These all changes in cultural environment have been effected from historical and social facts which based on contributed people's cultural life. This space which is the cultural street is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therefore, it has meaning of various proposals depend on people's own definition to the space; entertainment space, conversation space, activities space and so on. Finally, I really expect that these cultural street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people's cultural life and also the growth of the city as more green and cultural city based on realizing the new cultural values.

〈부록〉

문화지구· 문화벨트 · 문화도시 운영계획 개요

개요

[문화지구]

근거법

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의2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

법규정 내용 및 추진 계획

-지정권자

시· 도지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 도 조례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시행

· 시· 군수· 구청장은 문화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육성방안

· 문화시설· 문화업종에 대하여는 건축 기타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음(제한내용은 시· 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조례 제정 시 미리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국고보조

- 문화시설· 문화업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 행정기관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며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하도록 함.

-2000년 추진 일정

- 7.13까지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완료
- 7.20까지 : 관련법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통보
- 12.31까지: 문화지구 지정완료

(시· 도 조례 제정 및 도시계획 결정 또는 결정변경)

[문화벨트]

개요

-개념

- 문화적 특성을 지닌 문화지구를 포함한 일정범위의 구역을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지역

-유형

- 1개의 시· 군· 구내에서 일정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도시문화벨트와,
- 2개 이상의 시· 군· 구 또는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연계하는 광역문화벨트로 2분류하는 방안 검토 중(확정된 유형은 아님)

-법적근거

- 현재 법적 근거는 없음.
-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향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문화벨트 지정· 운영 방안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 또는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
- 지정 후 일정기한 내에 문화벨트조성계획 수립
- 문화벨트조성계획에 따라 필요시 세제감면· 국고보조 등 지원

2000년 추진일정

-용역추진(4월초~6월말, 문화정책개발원)

-시· 도별 문화벨트 현황자료 종합· 분석(5월말까지)

- 현황자료는 상기용역 및 2001년도 예산 요구 자료로 활용

-2001년 예산 확보추진(6월 이후, 기획예산처 협의)

[문화도시]

근거법

-도시계획법 제5조

법규정 내용 및 추진계획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 및 경관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 포함)를 지정할 수 있음

-문화도시 지정기준

- 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 주변의 호응도 및 참여가능성
- 자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도시발전종합대책과의 조화여부

-문화도시 사업계획

- 문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문화도시 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계획 수립비의 80%이하, 문화도시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보상비 제외)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2000년 추진일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7.1시행)- 건설교통부
- 용역추진 (주체 : 문화정책개발원, 기간 : 4월초~6월말)

*용역과제: '문화벨트, 문화도시 육성방안'

- 문화도시 선정 추진(8월~12월)- 문화관광부

행정사항

문화벨트 현황자료를 2000.5.15까지 제출 : 양식 별첨

참고사항

이번 문화벨트 현황자료는 용역(문화정책개발원) 및 2001년도 예산요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2000. 7.1 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지침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문화지구· 문화도시 사업 관련사항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문화관광부)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건설교통부)을 각각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법령이 개정, 완료되면 2000. 7.1 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지침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